

Style

조선일보

JULY 2019
vol.191



Cartier

PANTHÈRE DE CARTIER COLLECTION



CH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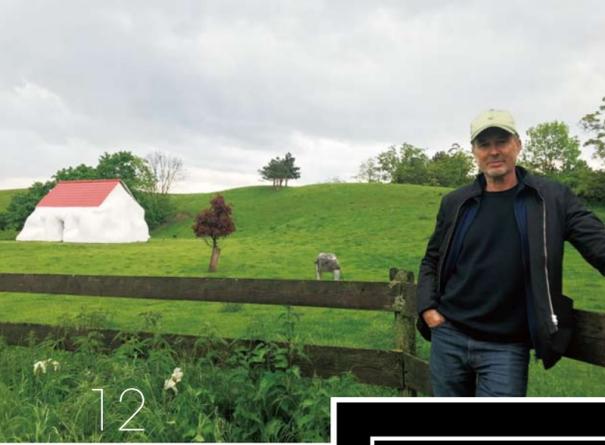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Perlée Collection
Rose gold, yellow gold
and diamond rings and bracelets.



12



주요리 겸 시계인 랜더드 카르티에 워치. 1980년 대의 오리지널 랜더드 카르티에 워치보다 좀 더 화려하게 재해석해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더블 투어 브레이슬릿 모델은 핑크 골드 체인이 손목을 우아하게 감싸며 관능적 스타일을 연출한다. 표지의 시계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18K 핑크 골드 더블 투어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스물사이드 모델이다. 문의 1566-7277

HOMO VIATOR

ART + CULTURE

34

35

36

38

39

34 OPEN AND LIVELY

35 부산,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다

36 MAKE IT NEW

38 삶과 죽음의 기억을 그리다

39 REMEMBER THE EXHIBITION



10

Style 조선일보 Issue.191 July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RICHARD MILLE



CALIBER RM 37-01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Jewel TRUE ICONS

새로운 감각을 입힌
매종의 아이코닉 주얼리.



황금 나비 브러시 골드
포토그라피 최승혁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72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포스텐 다이아몬드 Y 이어링 1천2백만원대 **프레이드**. 알파벳 T 모티브가 연속 교차하는 옐로 골드 티파니 T 트루 브레이슬릿, T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패헤 세팅한 로즈 골드 티파니 T 스퀘어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곡선기가 돋보이는 로즈 골드 바지르윈 디자인 레전드 벨로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블라데리**. 기존 모델보다 얇은 두께의 자스트 영 글루 핑크 골드 링 1백30만원대 **까르띠에**. 9개의 아코아 진주를 옐로 골드 코드에 일렬로 세팅한 밸런스 아이코닉 이어링 가격 미정 **타사키**. 4개의 상징적 밴드를 결합한 콰트로 컬렉션 블랙 에디션 다이아몬드 라지 링 1천만원대 **부쉐른**. 벨로 안 굽의 다이아몬드 밴드가 특징하는 피아제 포지션 오픈 벨로 브레이슬릿 7백30만원대 **피아제**. 에디터 **이혜미**

Fashion SUMMER SLING

트렌디하지만
가볍지 않고,
시원하지만
적당히 짙잖기도 한
슬링백.



포토그라피 최승혁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실크로 감싸고 크리스탈 장식을 매지한 브로슈 비바 에 슬링백 2백20만원 **로저 비비에**. 메시 소재에 스핑크스 자수를 장식한 쇼크 슬링백 1백만원대 **미들로 블라데리**. 옥스퍼드 슈즈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매력적인 시원한 블루 컬러 영스리 슬링백 70만원대 **마크 제이컵스**. 리드미컬한 물결 모양으로 리본을 장식한 스웨이드 슬링백 68만원천원 **알바니**. 테-베어 스타드 장식으로 우트를 다한 쇼크 슬링백 72만원 **모스카노**. 에디터 **장리은**



황금 나비 브러시 골드
포토그라피 최승혁

Beauty LET IT RAIN
땀과 습기에 강해 번짐 없이 깔끔하게 지속되는 워터프루프 뷰티 제품은 여름 메이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우부터) **샤넬 스틸로 이드 워터프루프 #블랙 우드** 다른 컬러 색조나 마스크라와 레이어링하면 한여름에도 내추럴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한 딥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 펜슬(0.3g 3만6천원). **랑콤 그랜드이즈 워터프루프** 특허 출원 중인 마스크라 붓과 이를 둘러싼 브러시, 한 번의 터치로 진한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강렬한 블랙 피그먼트가 특징이다(10g 4만4천원).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 래디언트 컨실러 #2C 라이트 미디움** 크림 같이 부드러운 포물라가 매끄럽게 발리며 동침, 갈라짐, 까임 없이 다크서클을 커버한다. 피부과·안과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10ml 4만2천원). **시슬리 히프 롤 스타 워터프루프 시머링 아이라이너 #스피클링 블루** 레진 복합체 덕분에 기루 날림이나 뭉침 없이 완벽하게 유지된다. 사파이어를 내장했으며, 팬데싱이 단단한 것도 매력적(0.3g 5만5천원). **이워글라스 젤 라이너 #브라운즈** 1.5mm 메카니컬 펜슬을 내장해 극도로 얇고 부드러운 아이라인을 손쉽게 그릴 수 있다. 사용 후 10초 만에 완벽하게 마른다(0.06g 2만4천원). **세르주 루벤 파 클 라이너** 진하고 선명한 발색으로 또렷한 아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으며, 더블 애플리케이션을 내장했다. 소량 사용할 때는 사인형 모양, 부드러운 터치로 원할 때는 둥근 것을 사용한다(4.5g 8만8천원). **이워글라스 베나쉬 파운데이션 스틱 #벨-라이트 뉴트럴** 커버력은 컨실러, 부드러움은 리퀴드 파운데이션, 가벼움은 파우더 수준의 완벽한 스틱이다. 고농축 피그먼트를 함유해 얇게 발라도 피부 결점을 커버할 수 있다. 작은 결점을 가리는 데도 효과적(7.2g 6만원). 에디터 **장리은**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Drinks 상큼하거나 강렬하거나, 다채로운 주류의 향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렇듯도 상큼하거나 강렬한 주류가 유혹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애주가가 많다. 삼페인, 싱글 몰트위스키, 보드카, 맥주 등 올여름에도 다채로운 신제품이 오감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숲에 발베니 디스틸러리 익스피리언스라는 팝업 체험 증류소를 열었던 구인 수제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 발베니(The Balvenie)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곁들인 한정판 '발베니 스토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달콤한 과일 풍미의 발베니 12년 스위트 토스트 오브 아메리칸 오크, 섬세한 피트 향을 품은 '14년 워드 오브 피트', 스파이시한 오크 향을 머금은 '26년 데이 오브 다크 발리' 3종이다.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 글렌모렌지(Glenmorangie)는 빈티지 컬렉션을 내놓았다. 언뜻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두 위스키의 창조적 조합으로 빚은 '그랑 빈티지 몰트 1991'은 고유한 풍미가 인상적인 26년산 한정판 위스키다. 색상과 디자인부터 청량감을 주는 신제품도 눈에 띈다. 삼페인 브랜드 뱀브 클리코의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뱀브 클리코 컬러라미(Veuve Clicquot Colorama)'는 와인 메이커의 블렌딩 노트에 담긴 연필 획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보령 효과를 더한 '뱀브 클리코 펜슬 리미티드 에디션, 아오에 나갈 때 실용적인 '뱀브 클리코 아이스 재킷'을 포함한다. 보드카 브랜드 업솔루트(Absolut)는 달콤한 핑크빛을 녹여낸 '업솔루트 그레이프 프루트'를 선보였다. 천연 핑크 지용의 맛을 담았는데, 살림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깔끔하면서 부드러운 맥주를 좋아한다면 붉은빛이 감도는 '앵버 라거 레드록(Redrock)'의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시도해볼 것. 중국 바이주를 좋아한다면 흑룡강상의 송년 행사에서 재배한 유농 귀리와 송화강 청장수로 양조한 '갈롱'이라는 신규 브랜드에 술거칠지 모르겠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프리미엄 바이주로, 인공지능 기술과 뇌과학 기법을 적용해 우리 입맛에 잘 맞는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Korean Eye 2020' 프로젝트 시동 걸다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이머징 아티스트'를 조명하는 '코리안 아이 프로젝트', 10여 년 전 런던의 사치 갤러리에서 진행된 전시를 기념한 프로젝트로 공식 명칭은 '코리안 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Korean Eye 2020: Contemporary Korean Art)'이다. 이에 따라 회화, 사진, 조각, 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국 작가 30명을 선별해 이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내년 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시작으로 런던 사치 갤러리를 거쳐(내년 여름), 내년 가을에는 서울에서 전시가 열린다. 세계적 출판사 스킨(Skira)에서 한국 작가 75명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화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코리안 아이는 아시아의 신진 작가 발굴하고 후원하기 위해 설립한 문화 예술 단체 PCA가 주도한 글로벌 아이(Global Ey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창업자는 미술출판사 데이비드 & 세렐라 시클라티(David and Serenella Ciclitira) 부부.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큐레이팅 팀은 PCA 최고경영자(CEO) 세레넬라 시클라티와 사치 갤러리 총괄 디렉터 필리 애덤스(Philly Adams),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아시아 부문 담당 디렉터 디미트리 오제코프(Dimitri Ozerkov)다.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스타트 아트 페어(START Art Fair)에서 코리안 아이 '티저' 전시를 선보인다. 코리안 아이 2020 프로젝트는 KEB하나은행이 후원한다.



MONTBLANC

Reconnect.

몽블랑 스타워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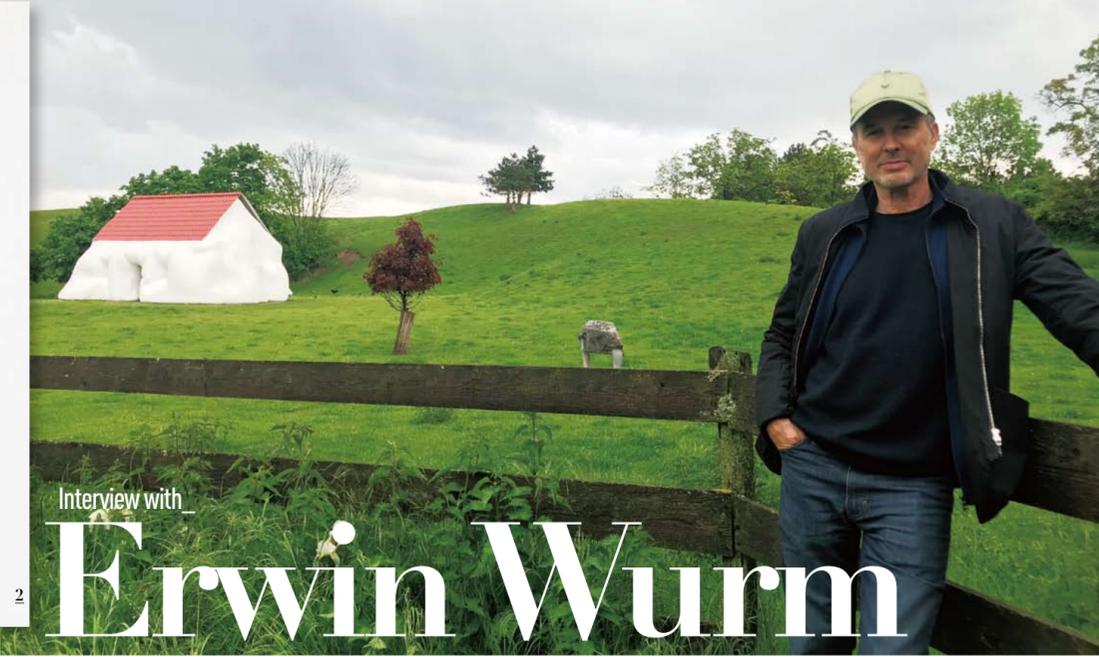
montblanc.com

1



2

Interview with Erwin Wurm



에르빈 부름(Erwin Wurm)이라는 이름은 현대미술을 애정하거나 관심을 지닌 어떤 이들에게는 꽤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2017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오스트리아 국가관의 대표 작가를 맡기도 했던 그의 개인전이 지난해 봄부터 5개월 가까이 서울 이태원에 자리한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열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아트 페어 아트 바젤(Art Basel) 홍콩 기간에도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저 화랑인 리먼 머핀(Lehmann Maupin) 갤러리가 그의 개인전을 진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말 아트부산 2019에 참가한 독일 쾨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는 여러 작가를 소개하는 대신 에르빈 부름의 단독 전시를 선보였다. 작가 개인이 전시 콘텐츠를 들고 '영업하면서 다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는 다양한 도시를 섭렵하면서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의 존재감을 부쩍 키워가고 있다.

‘동분서주’하는 작가와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필연적인 인터뷰

등에 반쪽, 세에 반쪽 하는 에르빈 부름을 남프랑스의 항구도시에서 마주했다. 대대적인 전시를 앞두고 마르세유의 한 미술관에 들른 그를 아주 우연히 맞닥뜨린 것. 예기치 않은 만남이었고, 당시에는 일정도 따로 있었지만,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 될 운명은 아니었던가 보다. 마침 필자는 일주일 정도 뒤에 에르빈 부름의 주무대인 비엔나로 향할 예정이었고, 그 도 긴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지 않는 주간이었던 것이다. 짧은 조우였지만 그는 예외 바르케 비엔나에 오면 한번 자신의 스튜디오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고, 흥미로운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작업실을 구경할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었다. 에르빈 부름의 작업은 단지 '이름값' 때문이 아니라 절로 관심의 촉수를 뻗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세로로 길고 좁다랗게 늘려놓은 듯한 집이라든가 몽실몽실한 느낌의 뚱뚱한 처라든가, 가늘고 뻐뻐 마른 오이나 젓가락처럼 늘려놓은 파격적인 비율의 인체 조각 등 그의 작품들을 보면 시각적으로는 언뜻 경쾌하고 재기 발랄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진중한 질문에서 출발했을 법한 생각의 토대가 궁급해진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만나게 된 에르빈 부름은 꽤 진지한 대화 상대였다. 이 점은 놀랍지 않았지만, 그의 작업실은 예상을 빗나갔다. 사실 그의 작업실은 비엔나에 있지 않았고, '작업실'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엄청났다. 비엔나에도 거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주로 차로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는 외곽에 있는 림베르크(Limberg)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다. 비엔나 자체도 '녹색 도시'지만, 림베르크는 그야말로 온통 초록색으로 뒤덮인 한적한 전원 마을.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 속에 에르빈 부름의 '스튜디오'는 아주 넓고, 존재감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커다란 농장이라고 해도 될 만한 북가적인 부지에 여러 채의 건물이 흩어져 있고, 그의 가족이 비엔나를 오가면서 거주한다는 운지 있는 고택도 자리하고 있다. 어린 딸을 제외한 부인과 2명의 아들은 공식적으로 그의 일을 돕고 있기도 했다. "(이탈리아인들처럼) 가족 기업을 꾸리고 있는지 몰랐다"고 인사를 건네자 그는 "오스트리아인 피파의 아이트에 온 걸 환영한다"면서 웃었다.

조각의 개념에 도전장을 던진다

스스로를 '조각가'로 규정하는 에르빈 부름의 정체성은 확고하다. 설치, 드로잉, 영상 등 대



3



4

5



7



8



9

1 오스트리아의 현대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르빈 부름(Erwin Wurm)의 스튜디오와 작업이 들어선 목가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림베르크(Limberg). 작가의 뒤쪽에 보이는 집은 'Fat Series' 중 하나인 'Fat House'라는 작품이다. Photo by SY Ko 2 에르빈 부름의 자화상 '18 / Me Later'(2017~2018). Crayons on paper, 29.7x21cm. 이미지 제공: Studio Erwin Wurm 3, 4 마르세유의 야리 미술관에서 작품이 선보이는 대형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2019년 5월 17일~9월 15일). 'Narrow House'와 'Far'가 전시된 모습. Photo: ©David Giancaterina 5 자느뵈르 이트 바젤 홍콩 2019 기간에 열린 에르빈 부름 개인전(3월 25일~5월 11일) 설치 전경. 6 림베르크에 있는 에르빈 부름의 자택 내부에 미국의 거장 알렉스 카츠(Alex Katz)의 작품이 걸려 있다. 그는 고미술부터 근현대까지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미술품 컬렉터이기도 하다. Photo by SY Ko 7 에르빈 부름의 램베르크 스튜디오 풍경. 곳곳에 작가의 작품이 자리잡아 어우러져 있다. 8 마르세유 개인전에 선보이고 있는 'Untitled'(2019). Plywood, metal, textile, wood, 140x42x32cm. 9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오스트리아 국가관 대표 작가였던 에르빈 부름이 당시 선보였던 작품 중 하나. 'Ship of Fools'(2017). 이미지 제공: 에르빈 부름 스튜디오(Studio Erwin Wurm). 10 지난해 서울 이태원의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거의 5개월에 걸쳐(2018년 4월 19일~9월 9일) 열린 에르빈 부름의 개인전 (Erwin Wurm: One Minute Forever)의 전시 풍경. 이미지 제공: 현대카드



6

다수의 현대미술가들처럼 그 역시 다양한 매체(medium)를 넘나들지만 그는 "나는 그저 조각가"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가 빛어내는 오브제, 사진, 비디오, 심지어 퍼포먼스까지도 '창조물'은 다 조각으로 간주한다. 조각의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살아 있는' 사람들, 사물들, 거주하는 등 무엇이든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drinking sculpture', 'outdoor sculpture', 'performative sculpture' 등의 독특한 분류법을 따른다. 미술사를 전공하면서 이론을 공부하다가 2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아티스트의 길을 선택한 된 그는 '조각이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역사 속에서 '전형성'을 지닌 조각이 21세기에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게 그에게는 예술가의 당연한 '동시대적인 책무'로 여겨졌던 것이다. 사물을 마구잡이로 비틀거나 인체를 우스꽝스럽게 변형한 '왜곡된 모습'의 기저에는 우리가 스스로 던져온 했던, 혹은 던질 수 있는 질문도 깔려 있는 듯하다. "나는 더 말라도, 뚱뚱해져도, 혹은 뼈를 깎아서 피가 스며들어서도 여전히 나인가?" 하는. 이처럼 도전적인, 아니 어찌 보면 누구나 품고 있을 만한 질문을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느끼고 고민해볼 수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에르빈 부름에게 처음 유명세를 가져다준 '1분 조각(one minute sculpture)', 혹은 '60초 조각'이 바로 그러한 인식의 지렛대가 아닐까 싶다. '60초 조각!' 글자 그대로 60초,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 있어야 한다. '살아 있는 조각'으로서, 지난해 현대카드 스토리지 개인전에서 관람객은 실제로 60초 조각의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친절하게 지시 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햇바닥을 내밀어라", "공 위에 누워 몸의 어느 부분도 땅에 닿지 않도록 하라", "마커 펜을 신발 위에 올리고 1분간 유지하면서 테카르트를 생각하라" 등의 지침이다. 이처럼 작가의 개입을 받아들이면서 관객들은 기꺼이 '침묵적인' 태도를 취한다. 몸을 의자나 테이블 밑으로 구겨 넣기도 하고, 허수아비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신발을 벗고 누워 있기도 하며 즐기는 이들이 많다. '신체 능력만 있다면 물구나무를 선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처럼 단 1분 동안만 '실재하는 조각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 영구적인 것만이 조각인가? 고정된 형태로 남겨질 수 없다면 조각이 아닌가? 순간은 영원할 수 있는가?' 이는 결국 '인간'과 '존재'에 대한 성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

흥미롭게도 그의 '개념' 조각 시리즈가 더 큰 유명세를 타게 된 배경에는 독일이 자랑하는 슈퍼 모델 클라우디아 슈퍼, 미국 록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같은 유명인과의 '협업'도 있었다. 슈퍼는 모델로서가 아니라 어느 관객처럼 1분 조각 프로젝트의 '인체 조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이미지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에르빈 부름의 설명인즉, 사실 그는 패션 잡지 <보그>의 협업 제안으로 공리를 하다가 반문답처럼 갤러리 관계자한테 이 프로젝트에 가담했으면 하는 '후보'를 얘기하면서 그녀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클라우디아 슈퍼는 그의 작품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흔쾌히 참여했다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와의 인연은 에르빈 부름의 조각 콘셉트가 그들의 뮤직비디오에 반영된 경우다. 'Can't Stop'이라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양동이를 머리 에 뒤집어쓰고 마커 펜을 쿿구멍에 넣는 등의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취하는 멤버들을 볼 수 있다. 에르빈 부름이라는 이름을 더 널리 알리게 된 계기로 작용한 건 당연지사.

이렇듯 작품을 '대중적으로' 홍보할 줄 아는 그는 여러모로 영리한 작가다. 하지만 자신의 토대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아니, 노력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회가 있다면 지구촌 어디든 열심히 다닌다. 작가들 중에는 다른 문화 예술 콘텐츠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에르빈 부름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문화적 체험을 좋아하며, 예술품과 오브제를 사들이는 컬렉터이기도 하다. 초심을 잃고 싶지 않은 그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은 블룸버스터 전시가 아니다. "브레멘에서 개최된 첫 번째 전시였어요. 열흘 남짓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모든 걸 다 해냈어요. 사실 (고민을 했어도) 구체적인 '뭔가가' 없이 일단 갔던 거죠. 아주 절실했어요." 전시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인 호평이었고, 그는 이때 느낀 성취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겉모습만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미 60대 중반이다. 아마도 간절함을 잊지 않으려 애쓰면서 부단히 고민하고 흡수해나가는 자세가 그를 '살아 있는' 작가로 유지시키는 게 아닐까는지. 글 **고성원**

어유로운 핏의 실크 · 울 혼방
화이트 재킷 4백90만원,
오이드 팬츠 1백90만원,
양가죽 에스파드리유 슬리이드
슈즈 80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오른손에 착용한 비트윈 더
핑거링 가격 미정 **에르메스**.

Summer Whisper

어느 고요한 해변에서 만난 여름날의 풍경, 그리고 리조트 룩.
photographed by park jong ha



블랙 스팅글 장식 점프수트 가격 미정 **사넬**.



스트레치 울 보디수트 1백10만원, 원형 팬던트 장식의 리본드 네크리스 2백37만원, 왼손 약지에 착용한 링 95만원, 파우치 스타일의 카프 스킨 오버사이즈 클러치 2백93만원, 니파 가죽앵글 스트랩 샌들 90만5천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레이스업 디테일의 레드 뷔스티에 가격 미정 **미우미우**,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메탈 소재 메시 링 76만원 **구찌**.



컷아웃 디테일이 멋스러운 블랙 원피스 스웬슈트, 빅 포켓 디테일의 화이트 코튼 셔츠, 블랙 카프 스킨 벨트, 레이스업 부츠 모양의 투박한 샌들, 왼쪽 손목에 착용한 사각 형태 실버 앵글, 오른쪽 손목에 착용한 실버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화이트 울타네 이브닝드레스 2백49만원, 솔샤림 연출 가능한 컬러 블록 실크 패딩 반디나 91만원, 볼드한 인조 펠을 장식한 필라름 드롭 이어링 65만원 모두 **빅버러**.



빅버러의 스트라이프
카드건 3백50만원 구찌, 레드 컬러
비키니 톱, 화이트 코튼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원손
감자에 긴 굵드 마감 처리한 스텔링
살버링 95만원 **보테가 보테가**.

소트 슬리브 슬림 핏 핑크 컬러
 셔츠 44만원, 양면에 스트라이프를
 더한 니파 가죽 와이드 팬츠
 1백30만5천원, 화이트 스트랩
 샌들 1백5만원 모두 **보스 우먼**,
 상단코르 모티브의 싱글 실버 이어링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원 솔더 라이트 비스코스 저지 티셔츠 44만원, 랩 스타일의 미디스커트 74만원 모두 **만스미라**, 입체적 구형 패턴으로 장식한 체인 네크리스 3백63만원 **보태가 베네다**, 블랙 스웨이드 소재 글래디에이터 샌들 1백73만원 **롱삼**, GG 미용 리피아 스몰 솔더백 3백10만원 **구찌**.

헤어 조미연
 메이크업 김미정
 모델 **아메리카(America)**
 어시스턴트 **삼현**
 에디터 **이혜미**

구찌 1577-1921
 로코파이나 02-546-0615
 롱삼 02-2143-7136
 만스미라 02-3467-8326
 마우마우 02-541-7443
 버버리 080-700-8800
 보스 우먼 02-515-4088
 보태가 베네다 02-3438-7692
 시셀 080-200-2700
 에르메스 02-542-6622

editor's Pick

휴가를 앞둔 7월, 촉촉한 보습부터 서머 메이크업까지 책임질 신상품 뷰티 아이템 추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클레어오트 보메 레디언트 리워드 루즈 매트 #102 타치 오브 벨로셀** 매트 특유의 뽀뽀하고 몽창는 느낌이 없다. 이트간 오일을 함유한 생크림 같은 텍스처가 부드럽고 촉촉해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베이킹 작업할 때 사용하는 필러트 나이트에서 영감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의 향과도 인상적. 8ml 6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장미윤*

클라리스 마이 클라리스 클리어-아웃 탠트 인퍼렉션스 새롭게 탄생하는 비건 라인 마이 클라리스는 천연 식물 성분을 원료로 화학 성분, 동물성 성분을 배제하고 일체의 동물성 성분 없이 개발한 착한 화장품이다. 총 9가지 제품 중 피부 트러블 케어에 초점을 맞춘 스킨 크림을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하면 더 나은 피부 컨디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피부에 스며드는 텍스처가 가볍고 신맛에 유대하며 더부러 좋다. 15ml 2만5천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이혜미*

룩시엔 시트라스 바베나 리프라이시 워터 젤 클리어시 같은 투명한 젤이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하게 느껴지며, 무엇보다 끈적임이 없어 여름에 적합한 제품.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바를 때 시원해 서아들이 좋아한다. 150ml 4만원. 문의 02-2054-0500. *by 에디터 장미윤*

DNC 파우더미지 크리스탈 스킨 마스크 보석 성분을 담은 리얼 보석 팩.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산호, 연꽃 등 각기 다른 4가지 보석 에센스를 함유했다. 작은 에센스 한 통 분량을 골뎌 적신 얇은 시트가 피부를 완벽하게 감싸 들뜸 없이 케어한다. 통기성도 좋아 아침에 사용하기 좋다. 시트 1개 30개 8개 기준 3만2천원. 문의 080-344-5575. *by 에디터 장미윤*

쇼파드 해피 쇼파드 비가라디아 오드 퍼플 하이 주얼리 쇼파드의 컬러 스톤 주얼리를 연상시키는 압록달록한 투명 보석이 사랑스러운 향수. 프랑스어로 비가라디아(bigaradier)라고 하는 비터오렌지 나무의 꽃과 가지, 열매 추출물이 핵심 성분으로, 달콤한 향이 특징이다. 여기에 파슬리, 라디싱 등을 가미해 세련된 무드를 느낄 수 있다. 100ml 17만5천원. 문의 080-990-8989. *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네츄럴 레디언트 블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샤를 피부 톤을 고르게 하고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지 않게 보호하는 나스의 레디언트 파운데이션을 쿠션 타입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피부에 가볍게 밀착하는 중간 정도의 커버력을 지니 피부와 자연스럽게 보정할 수 있다. 한국의 소비자들을 위해 출생한 #샤를 핑크빛이 감도는 밝은 톤으로 얼굴을 화사해 보이게 해 더욱 만족스럽다. 12g 6만9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혜미*

반 데르 피케 칼렌듈라 라파리 크림 먹을 수 있는 천연 피부에 바르는 거친 철학을 깨워 아이는 1백70년 역사의 네덜란드 오가닉 브랜드 반 데르 피케. 그중 피부 친성·수딩 효과가 뛰어난 이 크림은 손가락으로 짝오면 부드럽지만 바르면 꾸덕해지는 텍스처가 특징이다. 자외선, 일상의 스트레스, 오염된 공기 등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종 피부 트러블을 빠르게 개선한다. 110ml 4만2천원. 문의 031-716-4866. *by 에디터 장미윤*

프래쉬 로즈 딥 하이드레이션 슬리핑 마스크 이렇게 유난히 무서워서만 피부 때문에 고민하던 중 눈에 띄는 슬리핑 마스크. 양배달의 질 에센스, 실카린 워터 크림 2가지 텍스처를 함께 담아 리프라이시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2 스텝에 맞춰 마스크를 듬뿍 바르고 일어난 다음 날, 수분감 넘치는 부드럽고 탭 탭글글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70ml 6만2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이혜미*

결함 테라코타 칸투어 앤 글로우 팔레트 얼굴의 윤곽을 잡아주는 매트 칸투어, 세이딩 효과와 함께 광택을 더하는 브론저 세이드, 단독 또는 섞어 사용해도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꾸주는 블러시 & 하이라이터를 포함한 리미티드 에디션 팔레트. 얼굴이 유난히 흰 편인 에디터가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입자가 곱고 질러감이 자연스럽다.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연출하기에 제격 6.5g×3 9만4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이혜미*

볼리 1803 트루 아이오나이드 마세일 모니 손에 닿는 대진 화장품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듯 비니 확실히 피부결이 정돈되고 생기가 돋는다. 다음 단계 제품 사용을 위한 피부 초소를 다자리에 다함 나뉘어 없이 완벽하다. 마스트 광택에 닿아 수시로 사용해도 좋다. 200ml 5만9천원. 문의 02-511-3439. *by 에디터 장미윤*

리쉬레트 오가리 컬러 프로텍션 칸디다셔 잿은 염색과 펌으로 같이 염색이나 갈라진 모발에 효과적인 제품. 프랑스 남서부에서 재배한 콩 추출물을 함유해 단백질 케어를 돕고 헤어 컬을 오래도록 유지해준다. 한 달만 사용해도 영랑이 밀하고 모발에 윤기가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50ml 3만2천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이혜미*

데코르테 리스탈 볼륨 제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볼륨·결정 효과가 뛰어난 마스크라. 길이가 다른 눈의 모양에 맞춰 납땀한 스킨 곡선을 그리는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눈썹 뿌리 부분부터 한 올 한 올 꼼꼼히 바를 수 있다. 알고 힘 있는 속눈썹이 뭉침 없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9.1g 4만2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혜미*

구미 갈티 부르 올트 구짜가 만든 첫 번째 향수 중 하나로 특 쓰는 핑크 페퍼로 시작해 그린, 우디 같은 자연 향으로 마무리한다. 전체적으로 시원하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은은하고 남성적인 사파우드 향이 매력적. 지금부터 가을까지 사용하기 좋은 듯하다. 90ml 1만2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장미윤*



라빈 재킷 3만9300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핑크 컬러 버튼다운 셔츠 15만9천원, 하운즈투스 체크 베스트 45만9천원, 슬림 타이 12만9천원, 스트레이트 핏 화이트 코트 팬츠 17만9천원 모두 **폴로 랄프로렌**, 화이트 레이스업 슈즈 75만원 **차처스**, 블랙 사파이어, 브리프케이스 3만9천원 **프라다**.



옐로 컬러 렌즈 선글라스 20만원대 **레이번** by **복스타카**, 싱글브레스트 코트 재킷 3만9천원 **에르메스**, 민트 컬러 파케 셔츠 19만7천원 **맨오더**, 경쾌한 스트라이프 셔츠팬더 22만9천원 **폴로 랄프로렌**, 네이비 컬러 코트 팬츠 78만원 **프라다**, 브레이디드 레더 로퍼 65만9천원 **에스.티. 듀폰 슈즈**.

new business Class

시원하고 쾌적한 천연 소재,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가 어우러진 서머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스트라이프 시어커 재킷 3만3000원 **볼 브라움**, 실크 소재의 오픈 컬러 하프 슬리브 셔츠 35만원 **보스 맨**, 그레이 컬러 팬츠 1만7천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감각적인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마린트 트레일 로 스.카츠 43만5천원 **스파워트** by **바이커**.



마스터드 컬러의 코트 라인 재킷 95만원 **몬테드로** by **슬로웨이**, 이노비 매치한 티셔츠 19만원 **자노비** by **슬로웨이**, 코트와 라인 혼용 화이트 팬츠 43만원 **인코텍스** by **슬로웨이**, 브레이디드 벨트 29만원 **슬로웨이**, 토트백과 백팩, 두 가지로 연출 가능한 **필라레스타**™ 홀트 백 2만9200원 **에르메제빌도 제너**, 태슬 디테일의 스웨이드 로퍼 1만2700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에디터 이혜미

복스타카 02-569-3914
맨오더 1644-4490
보스 맨 02-515-4088
바이커 02-6905-3380
슬로웨이 02-6905-3569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에르메제빌도 제너 02-518-0285
에르메스 02-542-6622
에스.티. 듀폰 슈즈 02-2106-3596
처치스 02-3479-1140
폴 브라움 02-6905-3505
폴로 랄프로렌 02-6004-0220
프라다 02-3218-5331

SHOWROOM

BEAUTY



프라다



실론

프라다 라 페르 프라다 워터 스텔래쉬 만다린과 베르드 만다린으로 사탕향 선두우드로 미우리되는 시트러스 플로럴 계열의 여성 향수. 마치 열대지방의 정글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래픽적 플로럴 프린트의 보틀이 감각적이다. 문의 080-363-5454

실론 배우 이엘리아 뮤즈 선정 홀 커어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실론은 최근 떠오른 배우 이엘리아를 뮤즈로 선정했다. 도시적 이미지와 세련된 매력을 지닌 이엘리아와 함께한 브랜드 화보, 영상은 실론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246-1234

LIFESTYLE



시몬스 <리얼리티 바이츠> 전시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소셜 스페이스 시몬스 테라스에서 10월 20일까지 <리얼리티 바이츠> 전시가 열린다. 1960~70년대를 풍미한 히피 컬처와 사탕 신을 촬영하는 포토그래퍼 로이 그레이스, 뮤지션이자 서퍼인 잭 존슨 등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담았다. 2층에서는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 브랜드 뮤지엄 헤리티지 엘리트를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031-631-4071

골든듀 배우 한지민 뮤즈 선정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배우 한지민을 뮤즈로 선정하고 새로운 화보를 공개했다. 골든듀의 시그니처 주얼리를 다채롭게 매치한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탁월하게 표현했다. 문의 1588-6576



골든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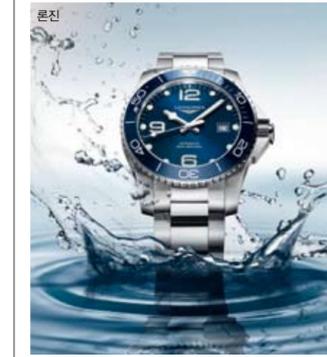


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아이코닉 워치 팬더 드 까르띠에 스톤 모델에 이어 미니 모델도 선보인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21x25mm 케이스는 손목이 가는 여성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골드, 스틸, 주얼리 워치 등 6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하며, 주얼리와 함께 레이어링하면 더욱 멋스럽다. 문의 1566-7277

론진 하이드로 콘퀘스트 수심 300m 방수 기능, 크라운 보호 가드, 이중 접이식 버클 등 다방면 워치의 특징을 집약한 모델로,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 베젤을 추가했다. 오토매틱 칼리버 L688, 2로 구동하며 슈퍼루미노바 코팅 그레이 핸즈와 샌데이 블루 컬러 다이얼이 조화롭다. 시, 분, 초,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 지름 41mm, 43mm 모델과 41mm 사이즈의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05-3519

몽블랑 스타 레거시 풀 캘린더 양파 모양 크라운, 몽블랑 엠블럼, 독특한 물결무늬 기요세 다이얼 등 미네르바 매뉴팩처의 역사를 상징하는 디자인 코드를 집약한 시계. 오토매틱 칼리버 MB 29, 12로 구동하며 지름 42mm 스틸 케이스 속 다이얼 가장자리를 둘러싼 31개 숫자를 따라 도는 빨간 초승달 모양 핸즈로 날짜를 읽을 수 있다. 12시 방향에는 월과 요일을 표시하는 창이, 6시 방향에는 문페이즈 창이 위치한다. 문의 1670-4810



론진



몽블랑



바세론 콘스탄틴

JEWEL&WATCH



MCM

MCM 네온 컬러 컬렉션 백팩, 파우치, 쇼퍼 백 등에 비비드한 네온 컬러를 입힌 컬렉션. 플로 홀로그램 라인인 은 기방 전면에 홀로그램 소재를 사용해 화려하며 내부에 작은 네온 비세토스 파우치를 넣어 백인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스테디셀러인 스타크 백백과 라스타 베네티 케이스에 네온 컬러를 입힌 네온 비세토스 라인 역시 매력적. 크로스 보디 백은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더해 2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79-1293

브루셀로 쿠치넬리 슬라이드 슈즈 부드러운 송이치 가죽 스트랩에 모닐리 패턴과 플라워 비즈 장식을 닮았다. 스위치 바디 발을 부드럽게 감싸 착화감이 뛰어나며, 미끄럼 방지 고무창을 덧대 안정감을 더해 착용할 수 있다. 슬라이드 슈즈 전채가 뉴트럴 컬러로 데님 팬츠부터 와이드 팬츠까지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좋다. 문의 3448-2931



브루셀로 쿠치넬리

JEWEL&WATCH

FASHION

브룩스 브라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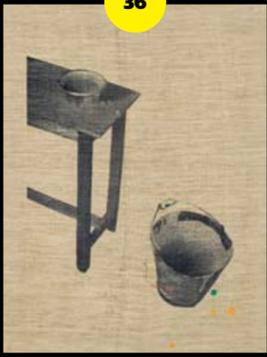


스와로브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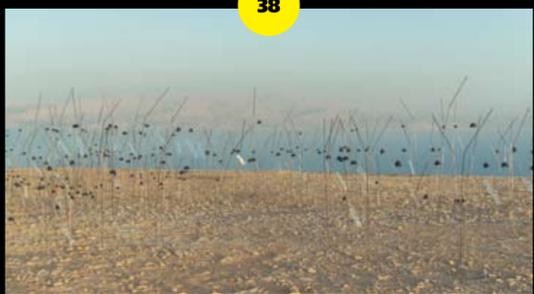
까르띠에

샤넬

HOMO VIATOR



36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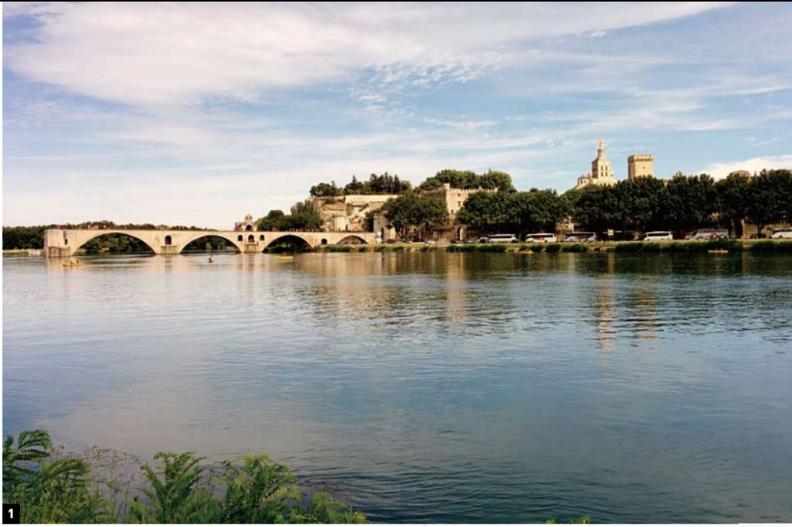


32



34

요즘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베스트셀러 <여행의 이유>에서 김영하 작가는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라는 단어를 회자시킨다. 라틴어로 '여행자', '나그네'라는 의미를 지닌 '비아토르'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 가브리엘 미르셀의 표현. 생존을 위해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늘 무언가를 위해, 어디론가를 향해 움직이는 '길 위에 있는' 순례자 같은 존재임을 뜻한다고 한다. 내 길이라는 확신으로 진중하게 움직이는 이도 있고, 뭔가 잡히는 것만 '꿈'에 부풀어 질주하는 이도 있고, 발걸이 이끄는 대로 떠도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에도 길 위에 있을 때의 모습이 여러 가지일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만이 아니라 '체류나' '출장', '여행' 같은 낯선 곳으로의 이동도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마음가짐으로 떠날 테고 말이다. 지든 타의든 낯선 곳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오르면 생각지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된다. 늘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아니, 집중할 수밖에 없다. 김영하 작가의 표현대로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 어떤 과정이 인생의 행로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Art+Culture' 스페셜호에는 자마다의 상황이나 국적, 연령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길 위에 있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들을 담았다. 부디 자연에서나 삶의 여행의 묘미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김영현



파리에서 TGV로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도시 아비뇽은 프랑스 여행의 문을 열기에 좋은 시작점이다. 론강변에 그림처럼 자리한 땅아진 다리(성 베네딕도 다리)로 상징되기도 하는 아비뇽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유산으로 사랑받는 도시다. 14세기 초, 왕권과 가톨릭 세력의 대립으로 불안해진 정세 탓에 바티칸으로 가지 못한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아비뇽에 머물게 됐다. 7명의 프랑스 교황을 거두면서 70년 가까이 계속된 이른바 '아비뇽 유수'는 도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성직자를 비롯해 예술가, 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이 도시를 방문한 덕분에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다.

첨단 기술을 녹여낸 21세기형 교황청 투어

아비뇽 유수가 낳은 대표적이 현존하는 고딕 양식의 궁전 중 가장 빼어난 건축을 자랑하는 교황청이다. 성벽 높이 50m, 두께 4m의 견고한 요새 같은 석조 건물은 한눈에 봐도 웅장하기 그지없고, 내부 역시 화려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번에 이해된다. 아비뇽에 간다면 이 교황청 주변을 여유 있게 거니는 산책 코스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지만, 내부 투어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3D 기술과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하스트패드 태블릿(histopad tablet)'으로 마치 중세로 되돌아가 교황청 '식구들이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도심을 이롭게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몰입형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황청 내부 투어를 끝내고 정상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도시 풍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감동도 놓치기 어려운 경험이다. 미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면 이 부근에 있는 라 미란드(La Mirande)를 추천할 만하다. 5성급 호텔이기도 하지만 운치 있는 샵롱 스타일의 카페도 있는데, 여기만큼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티 세트와 디저트가 일품이다.



신구가 교차하는 문화 콘텐츠의 향연

교황청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아비뇽은 여전히 격조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묻어나는 도시다. 대놓고 화려하지 않지만 문화 콘텐츠의 수준도 높다. 중세와 르네상스 등을 아우르는 귀중한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칼레, 프티 팔레 같은 뮤지엄들도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동시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도 눈에 띈다. 유명 칼라티자 밀라인 이봉 랑베르(Yvon Lambert)가 기증한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는 현대미술관 랑베르 컬렉션(Collection)이 대표적이다. 'Silence in the Museum'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 미술 건물로 들어가면 정원의 설치 작품이 반기는 이 미술관은 미니멀 아트, 개념 미술, 대지 미술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특히 솔 르윗 소장품이 인상적이다. 또 구구까지 중심부에 자리 잡은 앙글라돈 뮤지엄(Le Musée Angladon)은 드가, 세잔, 모딜리아니, 피카소 등 19세기 와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아비뇽의 문화적 자부심은 단연코 해마다 7월에 열리는 연극제이자 종합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이다. 인구가 10만 명도 되지 않기에 평소에는 한적하게 거닐 수 있는 아비뇽의 거리가 오히려 뒤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풍스러운 궁정들은 물론이고 축제 시즌에만 꽃단장을 한 채 여는 일종의 '팝업 전시장'이나 호텔에 도시에 놀러온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들은 열기에 취하면 점등투어까지 잠시 잊게 된다.

La Divine Comédie

걸어서 5~10분이면 교황청에 닿을 수 있는 중심가에 많은 이들이 양자를 차르드느라 다비네 코메디(La Divine Comédie)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0킬라미 문화 단체의 사후 세계 여행용이라 할 수 있는 고전 신화인 이름을 따왔다. 실제로 1층 응접실 테이블에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를 동시에 담은 표구본(산문)이 놓여 있다. 확실히 이름에 걸맞게 판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연모를 지닌 공간이다. 대문을 열자마자 무려 2백50년 된 플라타너스를 비롯해 키 큰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커다란 정원이 시선을 인도하며,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는 빈티지 가구와 현대적인 예술 작품이 우아하게 공존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부지의 역사는 무려 1447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주교령의 사저인 거처였다. 가장 최근에는 35년 동안 학교로 사용했는데, 현재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거처에 걸쳐 세심한 '재탄생' 작업을 했다. 주말이면 매진되기 일췌인 객실은 1만 5천개.

주소 Impasse Jean-Pierre Gras, 84000 Avignon
사이트 www.la-divine-comedie.com



1 론강에 있는 성 베네딕도, 땅아진 다리로 흔히 '아비뇽 다리(Pont d'Avignon)'로 불린다. 원래는 건너편 도시까지 이어져 있었지만, 17세기 말 홍수로 끊어졌고, 지금은 아비뇽으로 된 4개의 교각만 남아 있다. 현재 역사가 프랑스에서는 '세잔의 개관전'은 아비뇽 그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전시기와 열리고 있다. ©ABRY Hélène - Vaucluse, Provence 2 사내 중심가에 자리한 칼레 미술관(Musée Calvet), 자신의 미술 소장품 상 당수를 곁들 아비뇽에 기부한 의사이자 칼레티 에스프리 칼레(Esprit Calvet)의 이름을 딴 것. 18세기 지혜에 들어선 이 미술관은 15~20세기 회화와 조각, 장식품 등을 소장하고 있다. Photo by SY Ko 3 아비뇽의 현대미술관 랑베르 컬렉션 내부. 개념 미술가 로렌스 바아-의 작품 'Ruptured'가 눈을 사로잡는다. Photo by SY Ko 4 여유롭고 평화로운 도시 아비뇽은 세계적인 연극제 아비뇽 페스티벌이 열리는 여름철이면 인파로 북적거리고, 사진은 오래된 극장 건물의 건물. 5 웅장함이 독특 매력 있는 교황청 건물. ©CALLHOL Xavier/Go Production 5 형태로 컬렉션의 이름다른 인물이 이탈리아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 프랑체스코 베를리니의 조각 작품이 놓여 있다. Photo by SY Ko

한편, 프랑스 디자이너의 'fanceo'가, 프랑스 디자이너의 'fanceo'가, 프랑스 디자이너의 'fanceo'가



1 고흐가 생의 후반부에 1년 정도 머무르며 치료를 받았던 생페미 드 프랑스의 생폴 드 모술(Saint-Paul de Mausole) 수도원의 정신병동. 온몸 자에 둘러싸여 있어 병동에 갇혀 있을 때도 고흐는 풍경을 많이 그렸다. 2 노스트라다무스의 고흐인 생페미 드 프랑스는 천한 한 여자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무려 1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로마 유적은 또 다른 생페미의 상징이다. 이 단지 제곱: 지역 관광청 3 고흐는 생페미에서도 다수의 명작을 남겼기에 미술 곳곳에 그 자취를 볼 수 있다. 하늘색 배경이 인상적인 고흐의 자화상도 그중 하나다. 새로운 생폴 드 모술 안에 있는 카페. 4 빈 고흐 산책 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밟으면 올리브, 사이프러스 등 다양한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자연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다.



아비뇽에서 차로 3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프랑스에서 요즘 꽤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작은 도시, 아니 마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만한 아름다운 매력을 품은 생페미 드 프랑스(Saint-Rémy de Provence)가 나온다. 올리브 향이 공기에 배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올리브나무가 풍성하게 뒤덮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소도시는 당대의 예언가로 이름을 떨쳤던 노스트라다무스의 고향으로 프랑스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전 지구적인 유명세는 프랑스의 반 고흐 루트에도 포함된 덕분에 얻은 것이다. 고흐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을 비롯해 1백50점이 넘는 작품이 탄생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1889년 5월, 아롱에 머물던 고흐는 귀를 자르는 사건 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해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생페미의 생폴 드 모술(Saint-Paul de Mausole) 수도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해 1년간 창자를 이어갔다.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된 이 요양원을 찾자, 그리고 더불어 생페미의 풍경을 감상하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고흐의 자취를 따라가는 1km의 산책길

생페미에서 강추할 만한 여정은 한적하게 걷기다. 도심을 둘러싼 뒤생폴 드 무술을 향해 느릿느릿, 아름다운 풍경을 한껏 감상하면서 걸어가는 1km짜리 산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산책길에는 빈센트 반 고흐가 때때로 허기를 받아 감시인과 함께 병동에서 나와 정원으로 흡수했던 풍경이 펼쳐진 주요 장소들에 그의 그림과 설명을 담은 복제본 패널 19개가 놓여 있다. 올리브나무, 사이프러스나무, 양귀비꽃 등 자연 소재와 풍경을 모티브로 한 고흐 특유의 감성이 뽐낸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려진 풍경인 생페미, 고흐는 생생한 색이 두드러진 이곳의 풍경을 좋아했고, 특히 병원을 둘러싼 올리브 숲에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고흐가 아나드라도 생페미가 속한 알피(Alpes) 지역의 경치에 넋을 잃기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워서 더 슬픈 12세기 수도원의 풍경

고흐표 그림 패널과 함께 여기저기를 여유롭게 감상하면서 걸다 보면 어느덧 생폴 드 무술의 팻말이 보이고, 고뇌하는 표정의 고흐 동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건물 왼쪽에서 역시 그의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온다. 그가 그린 건물, 아리아스, 올리브나무 그림을 비롯해 하늘색 배경에 담긴 수평, 맑고 허무한 눈동자가 인상적인 그의 유명한 자화상이 프린트된 패널도 있다. 화창한 날씨 덕에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12세기 수도원 건물이라 그런지 이 요양원은 꽤 운치 있었다. 화랑 자체는 어두컴컴해 흐린 날에는 소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사각형 중정이 있는 인들의 소담스러운 화단은 빛을 머금은 천천히 미소 짓는 듯하다. 마치 기꺼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다시 우물에 빠진 듯했던 고흐의 대비되는 마음 상태처럼, 아찔하거나 그에게는 동생 테오의 배려로 치료를 받으며 육었던 병실과 별도로 작업실로 썼던 방도 주어졌고, 그는 그림에 몰두했다. '백마' 할 수 있는 뒤생폴은 여름이면 라벤다가 수놓인 들뜬이 날따라게 펼쳐져 있는데, 이 해맑은 풍경이 때로는 고흐에게 위안과 영감을 안겨줬으리라. 고흐에게 걸려 자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의 상상력은 빛났다. "그저 한 번 실물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관찰하고 만족할 만한 풍경을 그릴 수 있어. 별다른 하늘, 한 번 꼭 그려보고 싶어." 그가 친구인 에밀 베르나르에게 쓴 편지에 담은 소원은 그대로 그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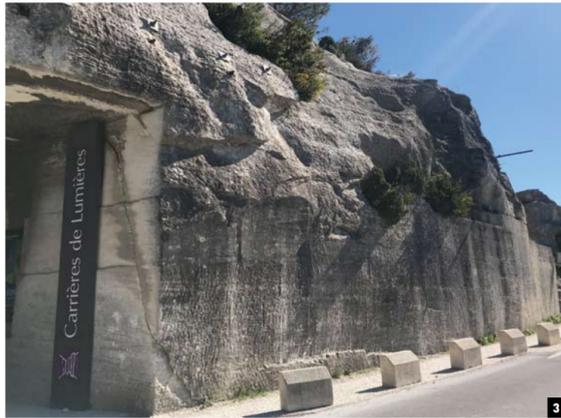
프랑스 디자이너 아웃렛 (Designer Outlet Provence)

프랑스의 소도시를 걷다 마주치는 상점들도 사랑스럽지만, 폭넓은 선택 속에 실속 있는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이 한 대가 없을 터. 맥아더클린 그룹이 운영하는 프랑스 남부 최초의 아웃렛으로, 2년 전 탄생한 프랑스 디자인 아웃렛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이이다. 생페미, 레부드프랑스, 마르세유, 엑상프로방스 등에서 차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미라마(Miramas)에 터를 잡았는데, 주변 경치가 수려할 뿐 아니라 건축과 정원 설계도 조화롭고 있고 있어 우수 아웃렛에 주는 상까지 받았다. 저층시, 빌딩시가지 등 명품 브랜드도 있지만 신드러, 마주, 이자혜 마방, 아메리칸 빈티지 등 프랑스 인기 로컬 브랜드를 다수 구비해 '실속파 패셔너들' 사이에서는 소문나 있고, 향후 공간을 더 확장할 예정. 쇼핑 중 허기를 달랠 약국들을 소개하면 프랑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올리브도르(Olivadors) 레스토랑을 가려해볼 필요가 있었다. 유명 세트도 마크 페라르가 남부 지역의 올리브 등 신선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개발한 매력적인 메뉴가 기다리고 있다.

주소 Mas de la Péronne, 13140 Miramas
사이트 <http://mcarthurgenprovence.fr>

Masterly tales

흔히 '남프랑스'라고 부르는 지역 중 하나인 프로방스(Provence)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빛의 땅이다. 수많은 이들이 영혼을 보듬어줄 햇살을 찾아 이곳에 오고, 도무지 잊지 못해 아예 집을 써서 제2의 고향으로 삼는다. 아비뇽에서 시작한 프랑스 여행은 마침 론강 계곡에서 지중해 쪽으로 부는 차고 건조한 바람 '미스트랄(mistral)'이 장식했다. '홀륭한', '거장다운' 같은 뜻을 지닌 영어 단어 'masterly'와 어원을 같이하는데, 이 바람은 명칭에 걸맞게 먼지를 날려주고 비구름을 몰아내준다. 그래서 청정하고 따스한 날씨의 도우미로 여겨지기도 한다. 빈센트 반 고흐의 풍경화에 소용돌이처럼 솟구치는 원들이 미스트랄의 소산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바람조차 때로는 사랑스럽다. 더욱이 문화 예술적으로 동시대적 감성이 스며들면서 묘한 이상향을 일으키는 변화의 풍경은 프로방스에 매력을 더해준다.



1, 2 석회암 바위 꼭대기에
있어 있는 듯한 듯한 마을
레보드프로방스(Le-Baux-
de-Provence). 이 마을로
올라가면 알피(Alpes)산맥의
수려한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3 레보드프로방스의 명사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빛의 채석장(Carières de
Lumières)에 있는 카페, 빛의
채석장에서는 배경음악이 흐르는
기운대 바위 위로 투사되는 0미터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알피디어
쇼가 펼쳐진다. 폐쇄된 채석장이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성공적인 재생
사례다. 4 현대 빛의 채석장에서는
반 고흐 전시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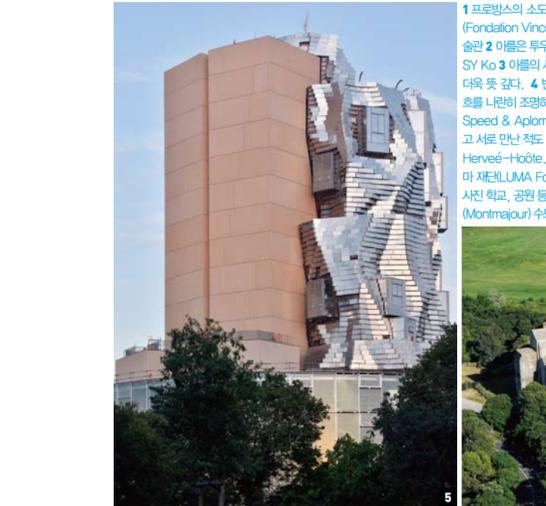
그림 같은 경치로 명성이 자자한 알피(Alpes) 산맥 지역에는 하얀 석회암
바위산 꼭대기 위에 걸쳐져 있는 듯한 마을이 있다. 인구 5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 레보드프로방스(Le Baux-de-Provence). 중세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프로방스의 보(Baux) 가문이 만든 난공불락의 요
새가 우람하게 버티고 있던, 그 자체로 문화유산인 마을이다. '보' 자체가 바
위가 있는이라는 뜻을 지녔고, 마을 입구로 올라가면 놀이동산을 연상시
키는 이뒀한 마을 풍경이 거짓말처럼 펼쳐진다. 모든 걸 축소해놓은 듯한 인
형 마을 같지만 나름 구색을 갖추고 있다. 기념품 가게, 식료품 상점, 크고
작은 집들, 레스토랑, 샵... 이곳에서 고즈넉한 건물에 들어서 있는 이브
브레르 뮤지엄(Musée Yves Brayer) 같은 미술관도 마주할 수 있다는 점
이 여행의 즐거움을 보태준다. 이 미술관에서는 현재 격렬하고 대담한 색채
의 조화로 유명한 화가로 프로방스를 사랑했던 앙리 땡갱(Henri Manguin)
을 내세운 아수파 전시가 진행 중이다(10월 10일까지). 오르막길을 따라 더 깊
이 들어가면 생애의 흔적이 남아 있다.

마법 같은 체험을 선사하는 '빛의 채석장'

많은 이들이 레보드프로방스를 찾은 이유는 단지 역사와 풍경 때문만은 아니
다. 매력적인 곳이 매우 많은 프로방스에서도 이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
게 하는 주된 동인은 따로 있는데, 바로 폐쇄된 채석장의 카타란 화합물 캔
버스 삼아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쇼가 펼쳐지는 '빛의 채석장(Carières de
Lumières)'이다. 전시의 곁에 있는 음악을 배경으로 7000㎡ 면적의 거대
한 채석장 벽과 천장, 바닥을 가리지 않고 이미지가 투사되는데, 정면이 계
속 바뀌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미디어 쇼는 몰입 체험의 장소
를 맛보게 해준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Van
Gogh, Starry Night),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아이리스' 등 그의 주
요 명작들이 배경음악 속에서 춤추면서 45분 길이의 쇼가 이어진다. 짧지 않
은 시간이지만 마일스 데이비스, 비발디, 스타테나 등 변화무쌍한 음악의 힘
으로 감동의 끈을 놓지 않게 한다. 고흐가 동경하던 '일본'이라는 주제로 역은
단편 영상 쇼도 볼 수 있다(두 전시 모두 연말까지).

고흐, 클림트, 인상파... 대중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혁신

빛의 채석장은 7년 전인 2012년 프랑스 문화 예술 기업 컬처스페이스
(Culturespaces)의 주도로 꾸러졌다. 원래도 시장과 쇼가 가능한 무대이기
는 했지만, 이 회사는 3D 음향 등에서 차원이 다른 이미엑스(AMIX) 기술
을 도입해 사길, 클림트, 르네상스 거장 등의 전사를 열면서 인기몰이를 한
것(자본해 한 해 방문객의 6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해에는 파
리에도 빛의 아틀리에(Atelier des Lumières)라는 공간을 열었는데, 몇 주
앞서 예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몰린다. 마침 제주도 서귀포에 특유의 물
입형 전사를 만들 수 있다. 자본해 말 한 컬처스페이스와 협업해 빛의 병
커리는 전시장을 마련했고, 개관전으로 구스타프 클림트 서거 1백 주년을 기
념해 (빛의 병커: 클림트) 전사를 택했다(10월 27일까지).



1 프로방스의 소도시에서는 드물게 고흐의 오리지널 작품을 상시 접할 수 있는 빈센트 반 고흐 재단 미술관
(Fondation Vincent van Gogh Arles). Photo by Hervé-Hoëlle. 이미지 제공: 빈센트 반 고흐 재단 미술
관 2 이블은 투우사가 등장하는 원형(장 등 로마 유적이 도심 곳곳에도 스며들어 있는 도시다. Photo by
SY Ko 3 이블의 사진 축제는 갈수록 각광받으면서 글로벌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는 개최 50주년의 해라
더욱 뜻 깊다. 4 빈센트 반 고흐 재단 미술관에서는 그루자리의 화가 니코 프로스만(Nico Prosmann)의 고흐
를 나란히 조망하는 기획전 'Wanderer between Worlds'의 (Vincent van Gogh: Speed & Aplomb)를 선보이고 있다(오는 10월 20일까지). 동시대를 살았던 두 화가는 작품 스타일도 다르
고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창조적 영혼을 고독하게 불태우고 사후에 주목받은, 다른 듯 닮은꼴이다. Photo by
Hervé-Hoëlle. 5 최근 수년 새 이블에 일하고 있는 변화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내분자 왕궁일 예정인 루
마 재단(LUMA Foundation Arles). 프랭크 게리가 많은 프로젝트로 월드 칭으로 쓰인 부채 전시 공간과
사진 학교, 공연 등이 들어선다. Photo by Hervé-Hoëlle 6 이블의 교외에 있는 중세 건축물인 몽마주르
(Montmajour) 수도원. 고흐가 즐겨 찾던 장소로 '엘마주르의 일몰'이란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 Lionel-Roux



'이블'이라고 하면 대개 반사적으로 '고흐'를 떠올릴 것이다.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블에서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생애의 드 프로방스
에 바로 앞서 15개월만 머물렀다. 하지만 동료 화가 폴 고갱과의 에피소드
가 워낙 잘 알려진 데다, 무엇보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따뜻한 햇살과 풍
경의 짙은 색감에 고무받아 2백 점이 넘는 회화를 남겼다(예 이블과 고흐는
한 쌍의 단아처럼 붙어 다닌다. '해바라기(Sun Life-Vase with Fifteen
Sunflowers)', '밤의 카페 테라스(Café Terrace at Night)', '론강에서
의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 over the Rhône)', '노란 집(The
Yellow House)' 등 당장 떠오르는 제목만 나열해도 지금은 기차를 매끼기
힘든 영작의 향연이다. 막연히 고흐만을 생각하고 이블을 찾는 경우라면 다
른 면모에 놀라게 된다. 고대 로마 유적이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고, 투우
경기까지 열리는 묘한 앙상블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이다(고흐는 로마 유적
같은 데는 영 관심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느린 속도에 익숙한 이블
로서는 꽤 격렬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동시대의 속도와 이미지에 발맞추는 도시 풍경

생애미와 미친기자로 이블에서도 고흐 따라잡기는 진부하게 느껴지더라도
가부하기 힘들다. 그가 살던 노란 집(아리타르가 포름 광장의 카페)는 실제로
이 카페의 손님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 치료
받았던 병원 등, 그런데 장작 이블에서 고흐의 '진짜' 작품을 마주치기는 힘
들다. 이는 프로방스의 다른 도시나 그가 사랑한 파리 근교의 오베르쉬르우
아즈도 마찬가지다. 생애에 '이블의 붉은 포도밭'이라는 한 점의 작품만을 팔
았던 고흐의 반복한 커리어를 생각하면 참 '웃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세계
유수 미술관들만이 소장하고 있는 그의 작품을 구하러 한 그로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하지만 2015년 스위스 재야 그룹의 상속자로 이블 근처에서 어
린 시절을 보낸 마야 호프만(Maja Hoffmann)이 부친에게서 비통을 넘겨받
아 반 고흐 재단을 맡으면서 미술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이 고흐
를 볼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자리 잡게 됐다. 그 이전에도 고흐의 드로잉
전시(마주르가 고흐에 헌정하는 현대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었지만, 현재나 그
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영구적인 장소는 없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로마 유적 사이로 솟아오르는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

주로 과거의 진혼으로 칭송받는 이블의 현대적 자부심은 '사진'이다. 1965년
프랑스 최초로 사진 전시를 개최한 미술관인 레아티앙 미술관(Musée Réattu)
을 둔 도시답게 사진 축제가 열리는데, 최근 들어 점점 더 명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는 특히 개최 50주년이라 뜻깊은 해인데, 명품
브랜딩 루이 비통은 이블 기법하는 이블 사티 가도도 발간했다. 이런 배경을
자신 만큼 이블에는 명문 사진 학교도 있는데, 현재 스타라텍트 프랭크 게리의
살거에 짓고 있는 루마(LUMA) 재단 건물이 들어서는데 새 부자로 확장해 이전
할 예정이다. 이미 사진 축제의 오랜 후원자로 지역사회의 문화에 기여해온 마
이는 쇼에서 나온 물질을 혁신적으로 재활용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원하
는 아틀리에 루마를 설립하고, 동시대적인 예술성을 반영한 호텔과 파인 다이
닝 레스토랑에 투자하는 등 이블의 변신에 앞장서고 있다.

보마니에르(Baumanière), 오감을 충족시키는 파라다이스

레보드프로방스의 또 다른 명물로는 물레 & 사토(Relais & Châteaux, 역사와 전통을 지닌 최고의 호텔과 명성 높은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연합) 호텔 보마니에르
(Baumanière)가 꼽힌다. 빛의 채석장에서 가까운 이 호텔은 병풍처럼 둘러싼 석회암 바위산을 올라볼 수 있는 50미터가 넘는 땅에 흠어진 다섯 채의 전통과 낭만이
기운 건물과 짙은 녹음을 자랑하는 정갈한 정원과 연못, 수영장, 최상급 스파 시설은 물론이고 미술관 2스타를 뺀다는 오트(haut) 라진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런 이유로 미려
한 자연 경관이 선사하는 힐링과 미식의 묘미를 동시에 만끽하려 찾는 이들이 많다. 1945년 창업자인 레이몽 툴라예(Raymond Thuiller)가 프로방스에 애도해 17세기 농가를 사
면서 시작된 보마니에르의 그의 외손자로 스타 셰프인 장안드 샤리올(Jean-André Charol)가 노의장을 과시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샤리올의 부인, 딸들도 마케랑, 디자인
등으로 강경에 참여하는 등 가족 7인의 꼴을 갖추고 있다). 역사가 깊고 화려한 만큼 파카스, 콥도 등의 예술인과 정치인들의 흔적이 호텔 곳곳에 깔려 있다.

주소 D27, Mas de Baumanière, 13520 Les Baux-de-Provence [사이트](http://www.baumaniere.com) www.baumaniere.com



서로 다른 매력, 그랑 오텔 노르 파누 vs 리틀리안

요즘 이블에는 2~3년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상영하며 호텔 등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수놓는 요소가 많다. 그중 독특한
아틀리에(가상)를 따지지만 부티크 호텔 리틀리안(L'Artisan)은 단연 가장 '핫하게' 화두는 이블이다. 이 역시 15세기
자재를 개조했지만, 쿠바계 아티스트 호르헤 파르도(Jorge Pardo)의 손길 아래 시간적 활용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감각적인 색의 조합이 인상적인 모자이크 플로어와 조명, 아수적인 미묘를 자랑하는 다채로운 맞춤형 가구와 소
품으로 둘러싸인 내부, 역시 범상치 않은 디자인을 뽐내는 레스토랑 등 '유틸리티'가 될 뎀도 요소를 갖췄다.

주소 20, rue du Sauvage, 13200 Arles [사이트](http://www.artisan.com/en) www.artisan.com/en

리틀리안과 대조적으로 그랑 오텔 노르 파누(Grand Hôtel Nord Pinus)는 전통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호텔이다. 고흐의
노란색 카페가 위대한 포름 광장에 자리한 이 호텔은 20세기 초반부터 장 콥토, 피카소, 에바 가르, 에드 피파프 등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들도록 둘러싸여온 곳이니 전설이라는 편이 없었다. 반세기 여와 모로코 스타일의 조명, 벽에 가득한 유명
인물의 누은 사진, 여전히 반짝이지 않는 벽 등 문명의 편을 추구하는 것(이탈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매력
이 넘는다. 특히 온 좋게 3층 객실을 차려다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을 머문하고 감동적인 이블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주소 Place du Forum, 13200 Arles [사이트](http://www.nord-pinus.com) www.nord-pinus.com



세계 아미를 기든 남쪽의 항구도시는 대체로 활기가 넘친다. 게다가 연중 3백 일이 햇살로 가득한 도시라면 두말하 무엇하랴. 파리에서 TGV로 3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시간 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4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탁월한 지리적 입지를 자랑하는 남부 프랑스의 주요 허브 도시 마르세유. 프랑스가 낳은 세기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의 고향이자 그의 현란한 발 기술요즘 이강인 선수 덕분에 한국에서 더 유명해진에도 마르세유 턴(Marseille turn)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크루즈나 해상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 천혜의 자연이 펼쳐진 갈랑크 국립공원 등을 끼고 있어 영화 촬영의 무대로도 빈번히 애용됐지만, 이 항구도시에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영광에 기대 산다는, 다소 허전한 이미지도 공존했다. 그런데 2013년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1백90도 변신했다. 그 중심에 지중해를 배경으로 압도적인 오리를 뽐내는 독창적인 건축물 위생(MUCEM, 지중해 문명 박물관)이 있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들어선 '스펙터클' 현대 건축물

2013년 지구촌 문화 예술계의 눈길을 마르세유에 꽂힐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파리가 아닌 도시에 분관 형태가 아닌 대형 국립박물관의 등장이라는 배경 덕분에 호기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푸르른 지중해를 배경으로 그야말로 시선을 압도하는 '스펙터클'이 주는 효과 때문이었다. 항구의 대문을 지키는 상징적인 성당 요새(Fort Saint-Jean)의 베이직과 절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통해 상륙과 이어지는 현대적인 유리 건축물. 위생을 덮고 있는 반복되는 콘크리트 소재의 그물 문양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물 문양의 틈새로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거닐면서 탁 트인 지중해를 바라보는 쾌감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하지만 자연과 어우러지는 빼어난 건축물이 선사하는 이 감동이야말로 매년 1백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이유일 것이다. 위생을 설계한 이탈리아계 프랑스 건축가 루디 리초티(Rudy Ricciotti)는 단순히 '스타터킵'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위생 사례로 활기를 띤 마르세유의 문화 풍경

이제 마르세유는 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건축 사례는 성공적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아파트 단지 시테 라디우스(Cité Radieuse)를 비롯해 지하 하이드, 구마 겐코 등 장광한 건축가의 작품이 많지만 위생 호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중요한 건 '완원이라는 집이다. 도시를 찾는 방문객 수가 많아지면서 마르세유 파인 아트 뮤지엄, 캉티니 등 사립 미술관이나 아트 센터 등 각종 문화 인원이 더 활발하게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선의 경향 효과도 있다. 위생 역시 콘텐트에 집중한다. 명칭이 말해주듯이 위생은 지중해 문명을 큰 주제로 다루겠다는 아심 아래 기획되었다(이집트, 기독교, 이슬람 문명 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콘텐트를 보유한 이유다). '지중해 문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애초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마르세유의 교차지 배경을 감안할 때 영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오래된 문명만 파고드는 건 아니다. 3,690㎡에 이르는 전시 공간을 활용해 파카스 등 수준 높은 근현대미술 전시를 개최한다. 현재는 베니스에서도 최고전이라고 불리는 <장 뒤부페(Jean Dubuffet)> 전시가 진행 중이다(9월 2일까지).



3 1남은이 흐르는 마르세유의 구항구 풍경. ©OTCM 2 푸르른 지중해를 배경으로 압도적인 오리를 뽐내는 독창적인 건축물 위생(MUCEM, 지중해 문명 박물관은 2013년 개관 이래 현대적인 마르세유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3 위생은 지중해의 여러 문명을 담구려는 컬렉션이나 기획전 이외에도 근현대미술을 다루는 기획전에도 공을 들인다. 현재 20세기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뒤부페를 상충 조명하는 <장 뒤부페(Jean Dubuffet)> 전시가 진행 중이다(9월 2일까지). 4 카타린 분수를 앞에 둔 화려한 건축물이 눈에 띄는 롱샹 궁전(Palais Longchamp). 궁전의 안쪽 건물 일부는 마르세유 미술관이다. Photo by SY 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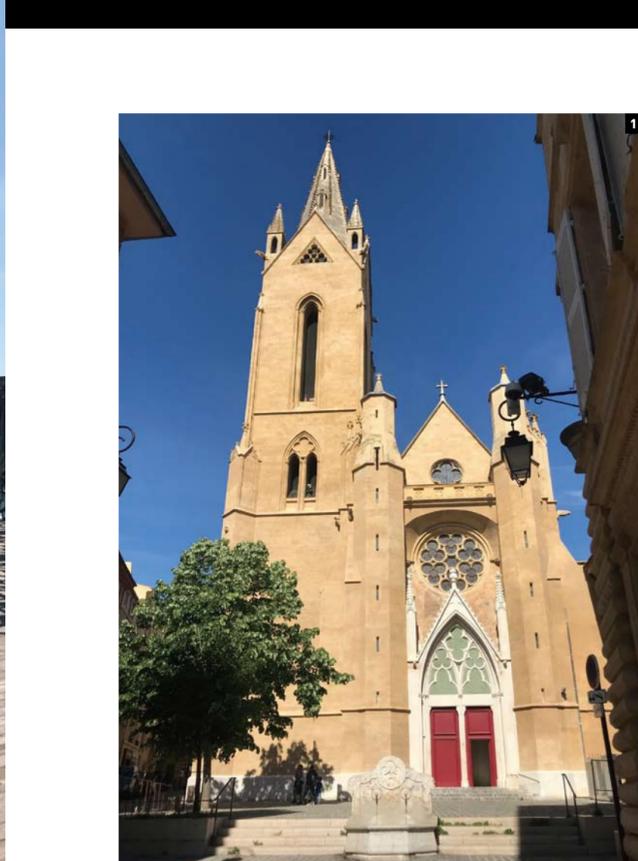
원 테이블 오 쉬드(One Table Au Sud)



햇살이 촉촉을 내려줄 때 마르세유의 구항구는 비가 올 때와 다르지 않다. 바다에 건물이며 요트며 모조리 반짝반짝 빛나는 풍경이 일출이다. 이처럼 예쁜 풍경과 함께 마르세유는 북극해 해줄 정소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원 테이블 오 쉬드(One Table Au Sud)는 그런 맥락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다(기중해 따라 언덕까지는 가지 않 마르세유는 지방의 고유 음식인 '부아베스민을 먹어야 한다는 이들도 있는 도시다.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과 화사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공간이 펼쳐지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젊은 미술관 스타 세르르 공하는 루도비크 튀라크(Ludovic Turac)가 꾸민 곳도 있는 레스토랑이다. 원래 토티스 출신의 유명 세프 리오넬 레비카가 차렸지만, 그가 2012년 말 호텔거로 떠나면서 튀라크가 맡게 됐고, 2015년 미술관 스타를 획득했다. 미학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플라멩고 인형극이 인상적이고 채소 등 재료의 식감을 살리는 솜씨가 뛰어난 디저트 맛이 빼어나다. 밤이 늦어지면 향토음료 내보이는 풍경이 식욕을 북돋는 건 물론이다.

주소 2 Quai du Port, 13002 Marseille **사이트** www.unetableausud.com

1남은이 흐르는 마르세유의 구항구 풍경. ©OTCM 2 푸르른 지중해를 배경으로 압도적인 오리를 뽐내는 독창적인 건축물 위생(MUCEM, 지중해 문명 박물관은 2013년 개관 이래 현대적인 마르세유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3 위생은 지중해의 여러 문명을 담구려는 컬렉션이나 기획전 이외에도 근현대미술을 다루는 기획전에도 공을 들인다. 현재 20세기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뒤부페를 상충 조명하는 <장 뒤부페(Jean Dubuffet)> 전시가 진행 중이다(9월 2일까지). 4 카타린 분수를 앞에 둔 화려한 건축물이 눈에 띄는 롱샹 궁전(Palais Longchamp). 궁전의 안쪽 건물 일부는 마르세유 미술관이다. Photo by SY Ko



1 엑상프로방스의 중심부에 있는 그라네 미술관(Musée Granet)과 이어져 있는 '성당' 건물. 폴 세잔을 비롯해 대가들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Photo by SY Ko 2 천혜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예술과 미학이 흐르는 샤토 라 코스트(Château la Coste). 도심에서 차로 30분가량 갈라는 외곽에 있지만, 방문할 가치가 차고 넘친다. 사진은 렌츠 파인홀의 파빌리온. ©RFBW Photo by Stephane ABOUDARAM. 3 올리트 칭사저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 재단 미술관은 엑상프로방스의 또 다른 문화적 보고다. Photo by SY Ko 4 그라네 미술관의 별관 건인 그라네 XXe. 스위스 아트 칼라제(Jean Planque)의 소장품은 파카스, 세잔, 고흐, 고갱, 브라크 등 대가들을 아우르는 긴밀한 만한 컬렉션의 집합이다. 5 일련의 건축 가장 안도 다디오의 손길이 닿은 건축물은 샤토 라 코스트의 입구에서부터 확립할 수 있다. 샤토 라 코스트에는 역사적 리프트 빌라 라 코스트도 있는데, 숙박객이 아니라도 전망이 좋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다. Photo by SY 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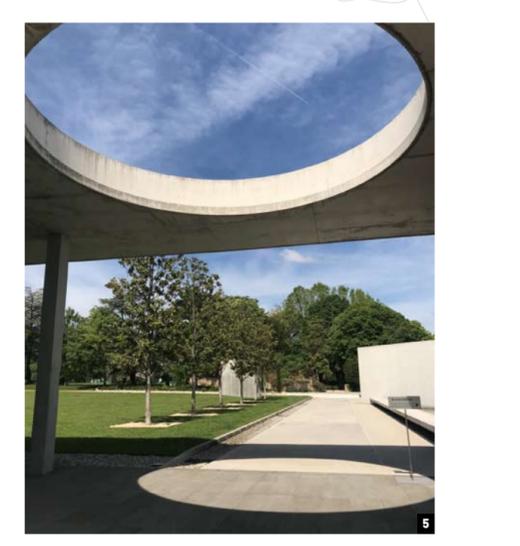
마르세유에서 북쪽으로 28km 떨어져 있는 엑상프로방스는 기원전 122년 로마의 집정관이 세운 도시다. 중세부터 프로방스 지역의 문화, 상업, 교육의 중심이라 여유가 흐르는 '맛쟁이' 도시로 통한다. 그러면서도 거주인 중 약 3분의 1이 학생이라 젊은 활기가 느껴진다. 바다를 면하지 않은 내륙 도시지만,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하고, 도시 곳곳에 자라난 개성이 담긴 다채로운 분수를 볼 수 있다. 이 도시를 짧게 즐겨 부르는 별칭인 '엑스(Aix)'는 고대 라틴어로 물(aqua)을 뜻한다고. 7월에는 오페라와 클래식 연주를 접할 수 있는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도 유명하다. 하지만 엑스는 워니 워니 해도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세잔(Paul Cézanne)의 고향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당연히 세잔의 자취가 곳곳에 묻어 있고, 그의 생애를 따라잡는 '세잔 투어'가 흔하지만 그게 전부일리는 없다. 특히 '현대적' 인 요소가 더 풍부해지면서 이 도시의 매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전통과 동시대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간들

엑상프로방스에는 '의외의 반가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현대미술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올리트 칭사저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 재단 미술관이다. 향리인 태생인 바사렐리는 1960년대 초부터 남프랑스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1976년 자신이 몸소 설계까지 기며 엑상프로방스에 미술관을 지었다. 올해 파리 폼파두 센터에서 최고전이 열리면서 디지털 시대에도 그만의 혁신성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바사렐리는 다양한 사장에서 본 대상의 부분을 모아 하나로 구현하는 '다시점(多視點)' 구성으로 현대미술의 시작점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는 세잔을 존경했다고 한다. 바사렐리 재단 미술관은 외관부터 내부 전시장까지 기하학적 형태와 미묘한 색채의 조화, 원근법 등으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옵아트의 면면을 제대로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획전도 열린다. 18세기의 유서 깊은 저택을 미술의 전당으로 탈바꿈한 코몽 아트 센터도 이 도시에 예술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수준 높은 기획전 뿐만 아니라 대칭미가 돋보이는 고이한 프랑스식 정원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7개도 인기 명소이다.

천혜의 자연 속 '미술관'

샤토 라 코스트(Château la Coste) 엑상프로방스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드넓은 외아너리와 동시대 미술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흔치 않은 곳이 있다. 천혜의 자연 풍경을 따라 끝이 어딘지 모르게 펼쳐진 샤토 라 코스트(Château la Coste). 안도 다디오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루이즈 부르주아의 '가미'가 물 위에 떠 있고, 칼다의 큰 조각이 함께하는 도입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처음에는 외아너리 주인이 친구인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설치 작품을 하나둘 들여놓으면서 마치 방대한 야외 미술관처럼 확장된 사례다. 장 누벨, 톰 새튼, 대니얼 리버, 그리고 한국이 낳은 가장 우수한 작품 등을 비롯해 긴 선형을 하다 보면 계속 마주치는 예술 작품들이 황홀할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물론 지금도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입성하고 있다.



매중 뒤 콜렉셔너르(Maison du Collectionneur)

심세하게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고된 기구와 오버제를 통해 젊은 주인이 자신 취향의 미학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은 호텔이 자체 여흥 엑상 프로방스의 중심부에 들어섰다. 마르보 가리 등 마르세유 지역의 중심에서 가깝고 그래서 뮤지엄, 코몽 아트 센터 등 웅장한 뮤지엄을 지칭해 둔 매중 뒤 콜렉셔너르(Maison du Collectionneur), 캉브레는 별난 대문만이 언뜻 숙박업소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사실 잘 보면 입구에 있는 비탈렌호 카페 위에 평행한 장이 없지 않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화사하고 세련된, 그러면서 안락한 감성의 인테리어에 기분이 좋아진다. 6개의 방도 자마다 아름다운 개성을 품고 있다. 호텔 명에 포함된 '콜렉셔너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이튼의 디자인을 사랑하는 컬렉터인 주인은 호텔에 버려지는 작은 물건도 심취 있는 브랜드에 따로 주문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근육 강장을 두는 데 좋은 볼렌트 오일 제품이 욕실에 놓여 있는 등 작은 기쁨을 선사하는 요소가 눈에 띈다.

주소 19 Rue Roux Alphan, 13100 Aix-en-Provence **사이트** www.maison-du-collectionneur.com

In the Steps of Paul Cézanne

현재 엑상프로방스에서는 '세잔의 개인전은 아니지만 그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전시가 열리고 있다. 우선 지금은 아트 애호가라면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유명한 곳이지만, 세잔이 없었던 별 관심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는 '생트빅투아르산을 소재로 한 그룹전이 그라네 뮤지엄(Musée Granet)에서 펼쳐지고 있다. 또 이 도시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코몽 아트 센터(Hôtel de Caumont - Centre D'Art)에서 진행 중인 '구겐하임 컬렉션 전시에서도 생트빅투아르를 담기 위해 작가가 수없이 찾았던 비베무스(Bibémus) 채색장을 특유의 붓놀림으로 녹여낸 풍경화를 볼 수 있다. '세잔 루트'를 따라가보자.

Aix-en-Provence



Marseille



1



2

많은 후배들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는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이지만 정작 자신은 몹시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인물이다. 사생이긴 했지만 엑상프로방스에서 모자 사업을 하다가 은행을 설립한 재력가 아버지를 둔 덕에 경제적인 고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창작 여정 말년에 이르러서야 화단의 인정을 받은 탓에 자신이 설정한 수준에 스스로의 재능이 혹여 못 미칠까 전전긍긍했다. 또 원래 부친의 뜻에 따라 법학도의 길을 걸으려 했지만, 도무지 흥미를 못 느껴 어머니의 도움으로 파리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아티스트의 길을 택한지라 부친의 눈치를 봐야 했다. 소용에도 서를 못했다. 대중의 외면과 주변의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당대의 지성 에밀 졸라와의 절교 등으로 힘들어했다. 그래서일까. 꽤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어 보이는 '노안'이기도 했지만, 세잔의 자화상을 보면 대부분 초췌하고 뿔치 모르게 불안정해 보이는 구석이 있다.

'외톨이 세잔의 인식 같은 곳이었지만 부친의 눈치를 봐야 했던 고향

그런 세잔에게 고향은 특별한 곳이었다. 1861년부터 1870년 사이 파리에 살고 있을 때도 그는 엑상프로방스를 자주 방문했다. 당시 미술 아카데미는 무척 보수적이어서 전통적인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양식에 따르지 않는 작품들은 '거부당했다. 당시의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이 같은 보수성에 대한 반발과 동요를 막기 위해 1863년 아카데미의 미술 전

람회에서 거절당한 화가들을 중심으로 '낙선전을 개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젊은 미술가들은 화단의 비평에 더욱 굳건히 뿔치지만, 세잔은 특유의 수줍음 많고 모난 면모가 있는 성격 탓에 이들과도 그리 잘 지내지 못했다. 그는 어둡기는 했지만 자유분방하고 힘이 흐르는 화법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했고, 징병을 피하고자 그는 프로방스로 향했다. 연인 마리 오르탕스 피케(Marie-Hortens Fiquet)와 엑상프로방스가 아니라 남부 바닷가 마을인 에스타크에서 보냈는데, 이때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1972년 아들 폴이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부분 같은 존재인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의 초청으로 퐁투아즈로 이주했다. 이 시기에 세잔은 피사로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작품을 많이 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색점을 흠뻑리는 듯한 인상파의 붓놀림과 달리 입체적인 느낌과 건축적인 선, 색의 조화 등을 활용해 대상의 '구조'에 초점을 뒀다. "모든 자연현상은 원기둥, 구, 원뿔로 함축된다"라는 세잔의 말은 '명언'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를 알아주는 이는 거의 없었고, 그는 1878년 엑상프로방스로 돌아가 가족과 지냈지만, 아버지의 무시를 견뎌내야 했다. 결국 그는 인상파와 '결별'했고,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하는 독자 노선을 택했다.

하미터면 사라질 뻔했던 세잔의 아틀리에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는 법. 이처럼 고립된 시기에 그는 강



4



5



6



7

렬한 색채와 단순한 형태만으로 대상의 부피와 깊이를 담아내면서 자연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성숙시켰다. 개념적인 추상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자연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서 구조에 집중하는 그에게서 피카소, 브라크 등의 입체파가 많은 영감을 얻었다. 1886년은 47세의 세잔에게 몹시도 고통스러운 해였다. 같은 해에 '절친' 에밀 졸라와 절교하고 아버지를 여의는 아픔을 잇따라 겪었다. 하지만 그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면서 재정적으로 독립했고, 주로 엑상프로방스에 머물면서 작업에 매진했다. 1901년에는 엑상프로방스 외곽에 무회화와 올리브나무가 무성한 아리따운 정원이 있고, 채광이 좋은 실내에는 장미 무늬 벽지를 바른 자신만의 아틀리에를 마련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스케치를 하러 나갔고, 아틀리에에서 해가 질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소소한 일상을 반복해서 이어나갔다. 아마도 그런 안정된 창조 여정 속에서 나름 자아의 평정을 찾은 것일까. 이때 그린 자화상을 보면 세잔은 더 이상 고집만 세고 불만투성이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1906년 세잔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아틀리에에는 마르셀 프로방스라는 인물이 사들였는데, 그의 사후에는 마땅히 거둬야 할 것이 없었다. 그러자 아틀리에의 운명이 혹여 잘못된 길로 갈까 걱정된 벤들이 기념회를 설립해 이곳을 매입하고 엑상프로방스 마르세유 대학에 기증했다. 지금은 시의 소유가 되어 늘 방문객으로 들끓는다. 필자가 이 아틀리에를 방문했을 때도 학교 수업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로 공간이 가득 찼다. 그가 살았던 생의 대부분에 걸쳐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팬이 많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서툰 차이 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생트빅투아르산을 수없이 담아낸 채색장 비베무스

세잔의 정물화에 '사과'가 자주 등장했다면 그가 그렸던 풍경화의 단골 소재는 단연 엑상프로방스 근방에 있는 생트빅투아르(Sainte Victoire)산이다. 그는 이 산을 비슷한 각도에서만 담아냈는데, 그 '스위트 스팟'이 비베무스 채색장

(Carrières de Bibémus)이었다. 철 성분 때문에 오랜지빛 바위가 여기저기에 보이는 이 채색장은 현재는 미리 '투어를 신청'해야만 둘러볼 수 있는 시영 관광지로 남아 있는데, 거의 항상 북적거리는 세잔의 아틀리에나 세잔 가문의 별장 등과는 다르게 대개는 한적한 편이라서 고요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산책로다. 실제로 채색장 내부뿐 아니라 근처에 수려하게 펼쳐진 숲과 호수 등을 아우르는 코스가 따로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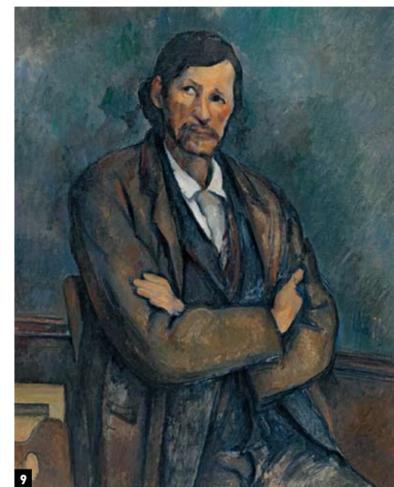
7헥타르 면적의 이 채색장 부지에는 손상되지 않은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적막이 흐른다. 하지만 가만히 거닐다 보면 대자연의 다정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올리브, 플라타너스,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깨끗한 공기와 그늘을 선사하고, 온갖 종류의 꽃들이 혹여라도 외로움을 탈까 봐 차마다 시끄럽지 않게 재잘거리면서 마치 빛이 되어주는 듯하다. '외톨이'를 자처했고, 늘 정해진 시간에 작업에 매달렸던 '워커홀릭' 세잔이 좋아했을만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세잔이 채색장의 황량해 보이는 풍경과 생트빅투아르산을 담아낸 시기는 1895년부터 1904년. 이를 위해 세잔은 이곳을 거의 매일 찾았고, 심지어 작은 거처까지 마련해줬는데, 지금도 소담스럽게 핀 꽃들 사이에 이 아담한 집이 남아 있다.

날카롭고 대담한 붓놀림으로 세잔의 화폭에 담긴 오렌지빛 바위들을 배경으로 한 숲속 산책은 여유 있는 걸음으로 전문 가이드의 설명까지 듣다 보면 넉넉하게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스팟'은 그야말로 화룡정점이다. 멀리서 은은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생트빅투아르산이 시야에 들어오는 가운데, 마치 세상의 모든 녹색을 모아놓은 듯한 경이로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아무리 사진을 찍어봐도 제대로 담기지 않고, 그대로 스케치를 해봐도 10분의 1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없는 풍경이다. 그래서 세잔은 이런 말을 남겼을 것이다. "자연을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감동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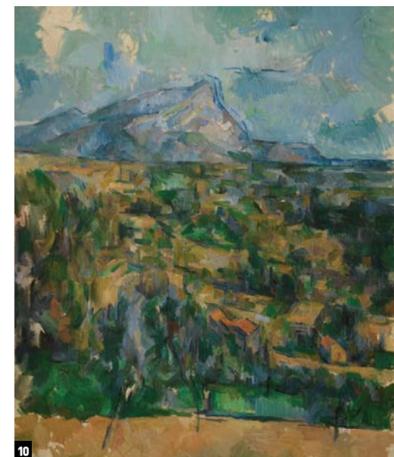


8

1, 3 1906년 그가 별세했을 때의 독립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 폴 세잔의 마지막 아틀리에. 캔버스와 이젤, 옷걸이에 걸린 코트와 모자 등이 채광 좋은 실내 공간에 놓여 있는데, 이곳을 찾는 이들은 작가의 예술혼을 느끼면서 그 유명한 정물화 속 사과 등을 절로 상상하게 된다. 2 엑상프로방스의 품격 있는 전시 공간인 코몽 아트 센터(Hôtel de Caumont - Centre D'Art)에서 열리고 있는 구겐하임 특별전 (Masterpieces from the Guggenheim Foundation)에 선보인 세잔의 정물화 'Flasque, Verre et Poterie'(1877년 작품으로 추정,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Thannhauser Collection, don Justin K. Thannhauser, 78.2514.3 이미지 제공: 코몽 아트 센터). 4 엑상프로방스 중심부에 세운 폴 세잔의 동상. 5 세잔이 커리어 후반부에 자주 찾았던 비베무스(Bibémus) 채색장. 이곳에서는 세잔의 단골 소재 중 하나였던 생트빅투아르산이 멀리서 보이는데, 그는 이 각도와 거리를 사랑했다. 6 세잔이 비베무스 채색장 내에서 휴식 공간으로 쓰던 오두막. 7 철 성분 때문에 다소한 오렌지빛이 나는 바위를 흔히 볼 수 있는 비베무스 채색장 풍경. 8 생트빅투아르산의 모습. ©Sophie Spiteri. 9 코몽 아트 센터의 구겐하임 특별전에서 선보인 세잔의 유화 작품. 'L'Homme aux Bras Croisés'(1899년 작품으로 추정,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54.1387 이미지 제공: 코몽 아트 센터). 10 그라네 뮤지엄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열리는 '생트빅투아르산' 전시에 나온 유화 작품. 'La Montagne Sainte-Victoire'(1902), 102.5 X 86cm. Fondation Henry et Rose Pearlman, Prêts de Longue Durée au Princeton University Art. 이미지 제공: 그라네 뮤지엄



9



10

아트부산(Art Busan) 2019 Open and Lively

탁트인 푸른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츄츄히 들어선 고층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산. 늘 활기 넘치는
항구도시지만, 지난 5월 말에는 좀 더 특별했다.
국내 상반기 최대 아트 페어 아트부산 2019와
더불어 문화 예술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졌기 때문.
아트부산이 열린 BEXCO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수만 6만3천여 명. 작품 거래가 상업적 흥행의
온도만큼 폭발적이지 못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맥락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축제였다.



올해 8회를 맞은 아트부산(Art Busan)은 골목길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첫해에 2만 명 수준(7개국 64개 회관)이었는데, 올해는 17개국 1백64개 갤러리가 참가했으며, 6만 명을 훌쩍 넘는 관람객을 동원했다. 특히 이번엔 부스를 차린 58개의 해외 갤러리 중에는 아트 바젤에 참가한 유럽 회랑이 포함돼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님을 보여준다. 베를린의 소시에테(Société)와 코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 페레즈 프로젝트(Peres Projects), 그리고 파리와 뉴욕 등에 전시 공간을 둔 알민 레슈(Almine Rech), 네 곳이다. 또 아트 바젤 홍콩의 '인카운터스(Encounters)'처럼 개별 작가의 설치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젝트(Projects)' 섹션을 올해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나이지리아계 영국 거주인 양카 쇼니바레 CBE(Yinka Shonibare CBE)의 사진지 국가의 문화적 혼성과 역사 의식을 기반으로 한 조각 작품. 프랑스 지역의 전통 천을 활용해 회화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대한 성찰을 담은 클로드 비얌(Claude Vialat)의 설치 작업과 인간의 움직임 입과 정적인 사물의 관계성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안드레아스 에미니우스(Andreas Emenius) 등을 등장시켜 상업적 기능만이 아니라 동시대 이슈를 제시하는 역할도 놓치지 않은 점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올해의 아트부산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어로 인정받은 데에는 미술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와 컬렉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덜 넉넉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문객을 포용한 '콘텐츠의 다채로움'이 한몫했다.

SNS 시대, 소수가 아닌 경향으로 즐기는 미술
어느 갤러리의 부스 한가운데 이색적인 플리 슈이 들어섰다. '롱롱디넨를 라워라'고 명명한 일라스트 종이 꽃 20여 가지가 놓여 있는데, 단돈 5천원이면 꽃 한 송이를 살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원도페인터, 일라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등 수작업이 다양한 나날 작가의 작업이다. 그녀의 '시들지 않는 종이 꽃다발 프로젝트'는 10, 20대의 발길을 끌면서 SNS 최고 인기 부스로 등극했다. 1세대 쇼핑물 CEO이자 피우 인물루언서로 SNS상에서 팬층이 두꺼운 강화재와의 협업도 눈에 띄었다. 자신만의 색이 있는 컬렉션으로 꾸민(강화재: 명량한 수집생)이란 제목의 특별한 전시 소통 방식이 날랐다. 여타 갤러리라면 대표작이 걸렸을 때인 율을 핑크색으로 칠하고, 그곳에 디자인 의자를 곁들인 '#Photozone'을 마련해 사람들이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올해 아트부산 현장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스폿이 근대관에 숨어 있었다. 비싼 작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자신들과 나눌 것이 많아 즐거워하는 경험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아트부산의 전략은 고가 작품을 차출하는 상업 논리로는 손해할 수도 있지만, 소비보다는 경험이 중요해진 문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현대미술 풍경 속으로 들어온
스트리트 감성의 크리에이티브 그룹
올해 아트부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백스조 전장을 벗어난 도심에서 소위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일컫는 이들이 펼쳐낸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롭고 동시대적인 풍경이었다. 과거 합법이나 스트리트 문화에서 방황성이 같은 이들이 모여 팀으로 활동했던 크루(Crew) 문화가 최근 예술계로 서서히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트부산 기간에 영화의전당에서 전시를



치른 WTFM(What the Fun Man)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그룹.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의자와 매트리스, 조명, 토이 등 일상의 가구와 오브제가 해체와 재조합, 낡은 낙서와 다채로운 그래픽의 흔적을 통해 본래의 쓰임과 형태의 골격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로움과 해방의 정서를 내뿜었다. 젊은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지난 자유로운 에너지와 서브컬처의 조화는 국가와 인종,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감성을 충진하는 커뮤니티로 확장한다. 그 가운데 파우와우 코리이는 아트부산 2019 특별전으로 비틀기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벨기에 아델 르노(Adele Renau)를 비롯해 제프 그레스(Jeff Gress), 슈트맨(Suitman) 등 우수 작가들이 가담한 복합 설치 작업을 영도 현여울 문화마을에서 진행했다. 지역에 보다 문화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서브컬처를 현대미술 풍경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전달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사례였다.

젊은 감각과 참신한 도전 속에 새롭게 싹트는 아트 신
부산의 아트 신이 한층 풍부해졌다. 지난해 올스도 부산현대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국내 메이저 회랑인 국제갤러리 부산점이 망미동의 복합 문화 단지 F1963에 동자를 틈 것. 올해는 서울에서 부산 망미동으로 아예 터전을 옮긴 갤러리 메이의 행보도 이목을 끈다.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갤러리 메이는 20~40대 국내외 젊은 작가의 참신하고 개성 있는 전사로 지역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가이아트 부산, 아트부산 시육을 중심으로 소규모 갤러리, 창작 공간, 카페 등이 들어서는 망미동 앞에는 새로운 아트 지구'가 될 조짐도 보인다. 사실 아트 페어는 속성상 참가 갤러리가 해마다 들고 나오는 작품의 결이 비슷하므로 보여주는 방식이나 분위기로 차별화하지 않으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실종이 날 수도 있다. 진정한 동시대 담론도 좋지만, 미술 소비에 대한 재편이 벌어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서 면모를 갖추려는 아트부산의 소통 방식은 나름 영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글 김현경(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부산,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다

20세기가 '초대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도시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1세기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이 도시에 거주했지만, 오늘날엔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는 현실을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한 영리한 '도시 브랜딩', 그리고 그 속을 채운 문화 콘텐츠가 갈수록 중시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트 도시'라는 수식어를 둘러싼 경쟁이 제법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는 영화제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제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성과 포용력으로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요즘 부산은 아트 신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여름 올스도에 들어선 부산현대미술관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관람객 13만 명을 동원했고, 국내 주요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한 아트부산(Art Busan)의 성공을 계기로 수도권 갤러리의 부산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항구도시에 꽤나 흥미로운 미술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근현대미술의 보고로 여겨지는 대구처럼 미술품 애호가의 '내공'이 탄탄하지도 않고, 광주처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글로벌 비엔날레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의 미술 풍경을 보노라면 꿈틀거리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성공적 '브랜딩' 아트 페어의 힘

세계 미술 생태계를 보면 크게 아트 페어, 비엔날레, 옥션, 세 속으로 돌아간다. 이 중 아트 페어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순히 '큰손' 컬렉터의 취향을 반영하고 세계적 유행을 좌우하는 현대미술 장터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역량 있는 젊은 작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녹아든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최신 이슈를 진지하게 논하는 담론을 펼칠 수 있는, 다각적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 한 예로, 홍콩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 허브'로 거듭난 데에는 아트 페어가 한몫 토포했다. 2008년 아트 바젤 홍콩의 모태가 된 홍콩 아트 페어(Hong Kong International Art Fair)가 설립되면서 미술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무렵 가고시안, 리민 머핀, 화이트 큐브, 페로 탱 같은 '스타' 갤러리의 아시아 분점이 속속 입성했다. 이어 2013년에는 굴지의 아트 페어 브랜드 '아트 바젤'을 운영하는 스위스 MCH그룹이 홍콩 아트 페어를 인수했다. 홍콩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좁게는 아시아, 멀게는 서구권의 미술계 인사와 컬렉터가 홍콩을 찾았고, 이에 발맞춰 정부

와 비영리 예술 기관, 갤러리가 모여 아트 주권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 마이애미 역시 2002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Art Basel Miami Beach)가 처음 열린 이래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했다. 그사이 대규모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중소 갤러리가 속속 생기는 등 생태계가 다양해진 건 물론이다. 마이애미가 나란한 휴양 도시에서 세련된 건축과 디자인의 도시로 변모한 데에는 아트 바젤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다양한 매력이 숨어 있는 부산의 잠재력

아트 페어는 지극히 자본 친화적 행사다. 그래서 각 도시 고유의 인프라를 대폭 활용하는 '지역 축제'로서 확장성을 지닌다. 넓은 해변과 긴 해안선을 따라 들어선 고층 빌딩의 풍경을 거느린 부산은 흔히 LA와 마이애미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살짝 어정쩡한 이미지를 뽐내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부산은 다면적 매력을 품은 도시다. 첨단 도시를 향해 달리는 대도시지만 임시 수도로서 역사, 근대 도시의 형성과 개발 과정에서 남은 흔적은 오늘날의 부산과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산의 독특한 풍경은 예술적 토양이 되기에 충분하다. 오래된 수리 조선소와 낙후된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 그리고 산복도로 등 구도심의 모습을 간직한 공간으로 거리를 미술을 이끌어 내어 시공간을 넘나드는 혼성적이며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간다. 지난 10여 년간 도시 재생 정책으로 진행해온 예술 마을 조성 사업, 거점 감성 문화마을이나 영도 현여울 문화 마을, 장림포구, 강경이 예술마을의 벽화와 공공 조형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 예술 콘텐츠는 다시 아트 페어나 비엔날레의 장외 프로그램과 연계되면서 부산 특유의 정체성과 동시대 미술이 결합한 흥미로운 관광인

프리를 만들어낸다. 사실 아트 페어, 비엔날레 같은 행사의 역할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 자체의 활력과 더불어 아트 부산의 꾸준한 성장은 외부로부터 컬렉터와 아트 딜러, 큐레이터, 작가 등 다양한 층위의 미술 관계자를 끌어모으며 다양한 아트 인프라에 대한 수급을 부추기고 있다. 망미동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F1963이 대표적 사례다.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협력해 폐공장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이 복합 문화 단지의 등장을 계기로 일대가 긍정적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메이저 회랑인 국제갤러리가 F1963에 입점한 데 이어 인근에 가나아트 부산, 갤러리 메이 등 중소 갤러리가 모여들면서 일종의 아트 지구'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비단 망미동에 한정된 변화만은 아니다. 향후 2~3년 안에 KT&G 상상마당, 부산 오페라 하우스 등 복합 문화 공간과 조현화당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부산에 지을 예정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이다

물론 아트 도시의 가능성을 외연적 성장과 파급 효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예술적 토양을 뒷받침하는 기본 가치가 중요하다. 사실 부산은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지역 작가의 규모가 타 도시에 비해 작은 데다 컬렉터나 갤러리 숫자도 부족하다. 어쩌면 그래서 부산 미술계가 특정 집단이나 운동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는지 모른다. 자연스럽게 젊은 미술인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며 신선한 도전을 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테고, 부산 미술계가 품은 청년성, 다양성, 개방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글 김현경(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한국 현대미술의 다채로움을 펼쳐 보이는 4인 4색

Make it New

1970년대 탄생했지만, 존재감이 미미했던 단색화가 2015년부터 세계 미술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미술 한류를 이어줄 뚜렷한 후속타의 부재에 대한 조바심과 한국의 현대미술이 단색화로만 국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 세계 무대가 좁은 듯 열심히 뛰는 작가들이 있다. 올해 해외 무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는 김중학(1937년생), 이강소(1943년생), 이불(1964년생), 강서경(1977년생) 네 작가를 소개한다.



이 글의 제목 'Make it New!'(새롭게 하라)는 모더니즘의 구호가 된 20세기 미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의 명구를 차용했다. 물론 모더니즘으로 되돌아가자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부터 소개할 4인 4색 작가들이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전 예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름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김중학과 이강소는 국내 명성만으로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을 통해 세계 미술계에 지속적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불과 강서경은 소수의 약자 혹은 한국적 주제를 세계적 표현 양식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을 탐구하고 있다. 단색화가 세계로 향하는 '뫼'를 열었다면, 이 4명을 비롯해 지난해 글로벌 행보가 돋보인 이배 등 여러 작가가 최근 그 문의 폭을 더욱 넓히며 다양한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중학(Kim Chong Hak)

벽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큰 화면이 꽃으로 가득하다. 첫눈에는 모든 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듯 많고 다양해 '꽃'이라는 집합명사가 한 묶음으로 쏟아진다. 시간 여유를 두고 바라보면 꽃이 하나둘 점점 친근하게 고우영사로 다가온다. 나팔꽃, 강아지풀, 할미꽃이 재간각 말을 걸어온다. 꽃뿐이 아니다. 잘 익은 열매, 꽃 위를 나는 새, 꿀에 심취한 벌, 날개를 활짝 펴고 꽃잎에 발금 안착한 나비, 풀잎 사이로 슬그머니 거미집을 치기 위해 나오는 거미 등이 차례차례 등장한다. 빨갛고, 파랗고, 섀넝고, 하얗고, 까만 온갖 원색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신기하게도 잘 어울린다. 마치 자연 속에서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핀 원색 꽃이 어디에서나 조화를 이루듯이, 그런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이 있다. 어느덧 화폭에는 처음 시선을 돌 때보다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듯하다. 화면에 가득한 꽃 사이에 안착한 곤충이 외곽대는데도 번잡하거나 시끄럽지 않다. 보타첼리의 명작 '봄(Primavera)'처럼 모든 등장인물과 요소가 중요해 원근법을 적용할 수 없듯이, 김중학의 그림을 보면 모든 식물과 곤충이 똑같이 중요하게 절대 평등이 실현된 유토피아가 느껴진다. 이러한 꽃 작업 때문에 한국에서 '신의 화가', '바다의 화가' 등으로 불리는



작가 유럽에서는 '꽃의 화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뿔뿔한 꽃 뒤에는 설악산이, 강릉 바다가, 한국의 하늘과 정서가 펼쳐진다. 꽃이 너무 진짜 같아 실제로 벌이나 나비가 날아들 정도는 아니다. 노자가 말한 '대교익족(大巧若拙)'처럼 큰 솜씨란 오히려 다소 서투르게 보이는 면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서구의 '키치'와 동양의 '서투름', 좀 더 정확히는 '능숙함을 넘어 자질로 서툰 맛과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나 싶다. 화면 전체에 균일하게 페인팅하는 올오버(All-over) 회화 작품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답답함과 숨 막힘이 이런 '서투름'의 미학 덕분에 한층 여유롭고 자연스러워진다. 이 매력을 알아보는 팬층은 이제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파리 기예 국립 중앙 박물관의 개인전 이래 아트비젤 홍콩, 페로탱 갤러리(파리, 베이징) 등으로 이어지는 최근 세계 무대에서의 분주한 활약은 그 방증이다.

이강소(Lee Gang So)

한국 1세대 아방가르드 작가 이강소는 얼마 전까지 베니스의 팔라초 카보토(Palazzo Caboto) 전시장에서 개인전 《Becoming》을 치렀다(2019.5.8~6.30). 국내에 '오리 작가'로 알려진 그가 서구에 처음 들고 간 조류는 오리가 아닌 '닭'이었다. 1975년 제9회 파리 비엔날레에 참가해 당시에도 혁명적이던 '닭 퍼포먼스'를 펼쳤다(무제 75031). 전시장 가운데 말뚝을 세운 뒤 실아 움직이는 닭의 다리에 끈을 묶어 연결했고, 이 닭은 석고 가루를 뿌려놓은 원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독특한 발자국을 남겼다. 비록 닭이 사라졌을지라도 관람객은 그 흔적을 보고 '현존(presence)'이 이뤄진(대상 폴 사르트르의 주장처럼 부재한 대상을 현존화(現實化)한 것). 프랑스의 상징이 '수탉'이기에,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유하기 좋아하는 프랑스인에게는 기이한 충격작이었다. 이처럼 생물을 퍼포먼스에 이용한 것은 전위미술가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의 '코요테,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도 나를 좋아한다'(1973)에서 코요테가 등장한 것과 거의 같은 시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에서 코요테는 혼자자 아닌 보이스와 함께였다(보이스는 3일간 코요테와 함께 지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1990년대에 '살아 있는 파리가 등장한 데이미언 허스트의 '천년'이 제작됐고,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가 '벌'이나 '강아지를 전시에 등장시킨 것은 2000년대다. 이강소가 파리 비엔날레를 계기로 유럽에 남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큰 이유다. '닭'이 한국으로 오면서 '오리'(물론 중간에 '사슴', '배'도 있었지만)로 변화되고,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들어간다. 오리는 물 위를 동동 떠다니거나 아장걸음으로 지면을 걷지만, 동양화의 여백처럼 물과 자연은 여백으로 처리된다. '오리'라는 모티브를 통해 관람객은 오리의 여유롭거나 급한 움직임, 물결, 대지의 흔적, 공기의 흐름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닭이 사라지듯이 오리의 존재도 점점 희미해진다. 하지만 오리와 그 주변 공간의 관계성은 도드라진다. 보통 '격물치지(格物致知)'라 하면,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지(知)에 이르는 것'을 뜻하지만, 이강소의 경우 지(知)가 '인식'뿐 아니라 존재론보다는 '현상학'이나 '관계론'으로 해석된다.



1 파리 3구에 자리한 페로탱 갤러리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김중학의 개인전 《Vitality》. 8m에 이르는 대형 회화 신작을 비롯해 드로잉 등 20여 점을 선보였다. Photo by Claire Dorn ©Courtesy of the artist & Perrotin. 2 지난해 볼 도코의 도미오 고키미 갤러리(Tomio Koyama Gallery)에서 열린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작품. 《Untitled》(2017), Acrylic on Canvas, 72.7×90.9cm. 3 《Moon》(2012), Acrylic on Canvas, 181.7×291cm. 지난해 프랑스 파리의 기예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김중학 개인전에서 전시한 작품. 이미지 제공: 조현희. 4 《Untitled-76098》(1976), Hemp Cloth, 65.2×50cm. 실크스크린으로 이미지를 찍고 그 위에 물감을 덧바르는 방식으로 만든 평면 작품 시리즈.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5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 참가한 강서경의 작품 《Grandmother Tower — low #19-03》(2013-2019). 6 강서경의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 설치 전경. photo by 강서경 스튜디오. 7 강서경의 설치 작품 《Land Sand Strand》(2012-2019). Photo by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8 올해 아트비젤 홍콩에 이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이불. 아르세날레 본 전시 설치 전경. 9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한 이불의 《Scale of Tongue》(2017-2018). Photo by Roberto Marossi. Courtesy Studio Lee Bul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and Seoul. 10 최근 베니스의 팔라초 카보토에서 열린 개인전 풍경. 《Untitled-75031》(1975/2019).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강서경(Suki Seokyeong Kang)

올해 열리고 있는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5.11~11.24)는 영국 헤이워드 갤러리 관장 랠프 루고프(Ralph Rugoff)가 총감독을 맡았다. 그가 내세운 주제는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이다. 1930년대 영국 정치가 오스틴 체임벌린의 말로 '흥미로운 시대(난세를 살아보라)'는 중국의 저주문을 차용했다고. 한데 정작 중국에는 이런 표현이 없으니, 소위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불분명한 '시물라크르(Simulacre)'가 넘쳐나는 시대에 걸맞은 주제다. 강서경은 한국인 최초로 격년제 예술상 '후고 보스상'을 받은 아니카 이(Anicka Yi, 1971년생), 그리고 뒤이어 다름 이불 작가와 함께 비엔날레 본 전시에 초대됐다(총 79명(팀)). 아르세날레 전시장에 설치한 그의 작품 중 '땅 모래 지류(Land Sand Strand)'는 땅에 흩어진 모래가 모여 지류를 이루듯 지류상의 개개인이 사회를 구성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춘앵무와 '정안(井欄)' 같은 우리의 고전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조선 세종 때 소리의 길이와 높이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만든 악보 '정안(井欄)'(井字 모양으로 칸을 나누고 그 속에 율명(律名)을 기입했다)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가장 앞선 율리(律)의 체계였으며, 효명세자가 만든 춘앵무는 가장 수려한 궁중 1인무 중 하나로 꼽힌다. 강서경은 악보에 그린 '음'과 무(舞)에 그린 '움직임(춤)을 회화, 조각, 영상 등으로 재현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요한 모티브를 고전에서 찾아내 체계화된 만자를 말끔히 털어내고,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시회화하고 현대적 예술 언어로 승화한 것이다. '땅 모래 지류'의 영어 제목은 'Land Sand Strand'인데, 각운(韻頭)이 'and'로 끝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기 아니리라. 독일 신학자 마르틴 부버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처럼, 관계가 존재야 앞선다. 즉 '너', '나'의 존재보다 '과(and)'라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땅(Land)'이 '모래(Sand)'가 되고, '모래'가 '땅'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그 관계성은 지류(Strand)로 재현되고, 이 모든 관계는 'and'로 엮인다.

이불(Lee Bul)

최근 조영란이나 재조명받는 세 작가와 달리 이불은 이미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1997년에 열린 뉴욕 현대미술관(MoMA) 개인전에서 소수 약자의 고통을 생생한 악취로 재현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이불은 이듬해 후고 보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또 1999년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인 대표 작가를 맡은 동시에 전설적 큐레이터이자 평론가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이 총감독을 맡은 본 전시에 초대되어 특별성을 누렸다. 이를 계기로 세계 미술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 이불은 20년 만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돌아왔다. 이불은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 세계 열강이 통일과 평화보다는 이권 다툼의 원리 각축장으로 삼아 그 수렁이 연장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철거 과정에서 나온 해체물 '오바드 V(Aubade V, 400×300cm)를 만들었다. 철조망을 비롯한 해체를 600kg을 녹여 만든 이 작업은 4m 높이의 3층 철탑에 층마다 달린 날개, 빛을 발하는 잔구, 모스부호, LED 표지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불의 작업은 근대의 실패한 이상주의, 어떤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실현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 오랜 망상이면 백색 신화, 근대 서사, 이미 해체된 거대 담론을 읊는다. 그러나 외형적 형식과 달리, 이불의 작품은 지독히 현실적인 현재의 문제를 다룬다. 1989년의 '늑대' 같은 그의 초기 작업을 보면 동시대 약자의 이름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승화되고 숙성되어 나타난다. 일시적이며, 덧없고, 우연적 현실의 이름을 영원하고 불변한 예술로 승화하려는 고뇌가 드러나 있다. 그의 예술 한편에는 현재성과 일사성의 미학이, 그 반대편에는 불안한 영원성의 미학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 독일 테고, 이불의 작품을 찬찬히 감상하다 보면 19세기 후반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말이 떠오른다. "모더니티는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 우연적인 것으로 예술의 절반이며,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것, 불변의 것이다." **글은은(광주대자비엔날레 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Christian Boltanski in Tokyo

삶과 죽음의 기억을 그리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도쿄 국립 신 미술관(The National Art Center Tokyo)과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Espace Louis Vuitton Tokyo)에서 잇따라 베일을 벗은 프랑스 현대미술계 거장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전시. 기억이라는 주제와 결코 망각하지 않으려는 의식에 집착하며 자신만의 신화와 전설을 구축한, 반세기에 걸친 볼탕스키의 작품 세계를 밀도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건 불변의 진리다. 하지만 소중한 누군가를 잃기 전까지 죽음은 마나면 일로 치부되거나,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떠나 보낸 기억이 있다면 그저 흐르는 시간 앞에 무덤덤하게 기다리는 시간의 끝맺음이기도 하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외면하기 일쑤인 이 사실을 평생 동안 환기해온 예술가가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다. 1944년생으로 유대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유대인 학살을 어렵잖이 목격한 그는 1967년부터 기억과 소멸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춘 작업 활동을 시작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가 살아가며 겪은 증대한 순간과 사연을 담아내는 볼탕스키는 글, 영화, 조각, 사진 등 장르를 넘나들며 진실과 허구의 이야기를 섞은 작품의 재구성을 시도해왔다. 그는 직접 수집한 사진, 신문, 아카이브는 물론 작가 자신이 일곱 살(1951년) 때 신은 장화 한 켤레를 점토로 복원한 오브제부터 가방, 옷, 모자에 이르기까지 기억을 지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개인, 나아가 공동체가 맞닥뜨린 운명의 굴곡진 여정을 따라 감성적 강렬함을 담은 설치 작업을 한다.

켜켜이 쌓인 기억의 합주, 소멸의 시간을 다루다

〈라이프타임(Christian Boltanski-Lifetime)〉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열리는 도쿄 국립 신 미술관 입구. 프랑스어로 '출발'을 뜻하는 'DÉPART' 내온사인 작품 너머로 잔잔히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뚫고 나오는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의 기침(L'homme qui Tousse(기침하는 남자), 1969)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바지가 흥건히 젖을 때까지 피를 토하며 기침하는 기이한 (인형 탈을 쓴) 인간 형상의 생물체를 포착한 짧은 영상은 그 강렬함에 절로 발길을 멈추게 된다. 그렇게 이어지는 전시 공간에는 켜켜이 쌓인 녹슨 박스 위로 흐리게 미소 짓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리게 한다.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해 보이는 나이의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삶을 채 썰지 못하고 짧게 타는 듯 불처럼 생명이 꺼져갔을 것이다. 전구를 무한히 잇는 검은 줄은 그들을 옥죄 거미줄을 형성화한 듯하다. 관람객이 작

품을 온전히 이해하기보다는 사색의 계기로 삼고 자신의 이야기를 채워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노장의 회고전을 감상하다 보면, 눈 감은 무표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다양한 표정의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이 벽을 뚫고 튀고 있다. 전쟁이라는 비극이 초래한 죽음을 다루던 시대의 목격자는 나이가 보다 근원적 죽음을 탐구하기에 이른다. 최신작 'Terril(탄광, 2015)에서는 누구의 소유였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개인성도, 추억도, 형태도 사라진 검은 옷 더미를 마주하게 된다. 이 전시는 9월 2일까지 계속된다.

아니미타스: 존재의 변덕스러움, 망각, 상실, 시간을 다루다

도쿄 오모테산도에 위치한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에서 국립 신 미술관 전시와 연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열리는 볼탕스키의 또 다른 전시 〈아니미타스 II(Animitas II)〉. 파리에 있는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미공포 소장품을 선보이는 미술관 밖 너머의 일화로 열리는 전시로 수년 동안 작가가 열중해온 '아니미타스' 연작의 영상 2편을 선보인다. 아니미타스는 망자를 기리는 길가의 작은 재단을 표현한 것으로 3백여 개의 가느다란 줄기에 달린 초롱꽃 종으로 이뤄진 한적한 풍경을 담은 설치물이다. 시간이 흐르며 사라지도록 고인한 이 설치물은 해당 장소에 얽힌 수천 영혼의 이야기와 볼탕스키 개인의 과거를 모두 아우른다.

아니미타스를 소재로 한 영상 시리즈의 첫 번째 버전은 황량한 아타카마 사막을 배경으로 작가의 생일에 남반구에서 관찰되는 은하수를 재현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번에 루이 비통 전시 공간을 수놓은 작품은 각각 일본 데시마섬과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재해석한 '아니미타스: 속삭임의 숲(Animitas: La Forêt des Murmures)'(2016)과 '아니미타스: 사해(Animitas: Mères Mortes)'(2017년 가을). 풀 내음 가득한 전시 공간에 은은하게 투영한 영상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한 번에 촬영해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영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풀과 꽃의 물결 속에서 관람객이 귀 기울이는 종의 부드러운 흔들림은 작가가 묘사한 '별의 음악과 떠다니는 영혼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작가가 그토록 '도착(ARRIVÉE)'하고자 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글 황다나** **edited by 고성연**



2 안니미타스 II(아니미타스 II)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3 안니미타스 II(아니미타스 II)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 안니미타스 II(아니미타스 II)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1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Photo by 크리스티앙 카인(Christian Kain).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2 Entre-temps(2010). Collection of the artist ©Christian Boltanski/ADAGP, Paris, 2019. Photo: ©The Israel Museum, Jerusalem by Elie Posner. 3 Monument(1988). Collection of the artist ©Christian Boltanski/ADAGP, Paris, 2019. ©The Israel Museum, Jerusalem by Elie Posner. 4 Terril(2015). Collection of the artist ©Christian Boltanski/ADAGP, Paris, 2019. ©MACA's Grand Hornu, Belgique, Photo by Philippe De Gobert. 5 아니미타스: 사해(2017).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10시간 33분). Courtesy of the Fondation Louis Vuitton(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Adagp, Paris 2019. *사진 2,3,4는 도쿄 국립 신 미술관의 전시, 5는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의 전시 이미지.



5

Remember the EXHIBITION

침착한 매력에 돋보이는 국내 신진 작가부터 흥미로운 방식으로 창조적 지평을 넓혀가는 해외 아티스트, 국내외를 아우르는 세계적 거장의 개인전까지. 2019년 하반기에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소식.



국제갤러리 부산 하중현 개인전 <Ha Chong-Hyun>
최근 LA, 파리, 런던, 뉴욕, 도쿄 개관전 등 국제 활동에 주력해온 한국 화단의 대표 작가 하중현이 국내에서 4년 만에 갖는 개인전.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50여 년간 회화를 다뤄온 작가의 대표 연작 '접합(Conjunction)' 근작과 신작 10여 점을 소개한다. 다양한 재료를 접목한 실험적 작업 방식과 새로운 색채의 기법으로 회화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작가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기회.
전시 기간 7월 28일까지 문의의 kukjegyallery.com



아트스페이스 광고 개관전 <최정화, 집화>
익숙하고 평범한 재료를 사용해 특유의 조형 감각이 돋보이는 설치 작품으로 주목받는 작가 최정화는 일상, 예술, 비예술의 경계를 넘어선 특별한 시공간을 탄생시킨다. 세상의 모든 물건으로 차린 잡화점이라 소개한 이번 전시를 통해 과일나무, 달팽이와 창개구리, 'Love Me' 등 아외 설치 작품, 타타타, '눈이 부시게 하겠음', 빛, 음, 빛을 비롯한 다양한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8월 25일까지 문의의 sima.suw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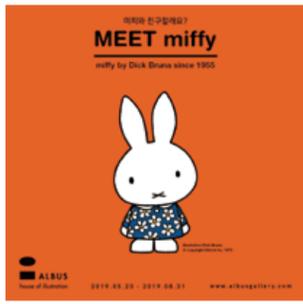
대구미술관 <박성광展>
1980년대 초반 민화, 불화, 무속화 등에서 발견한 전통적 이미지를 강렬한 색채와 수묵, 채색을 혼합한 독창적 기법으로 표현하며 채색화의 새 지평을 연 박성광 작가 회고전. 작가의 고유의 화풍을 찾고자 분투하며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 시기부터 '그대로 화풍의 전개 시기에 걸쳐 평소 잘 공개하지 않던 드로잉 작품 80여 점과 미완성 유작 '노적도' 외 회화 82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10월 20일까지 문의의 artmuseum.daegu.go.kr



바라캣 컨템포러리 <게리 훔: Looking and Seeing>
1980년대 후반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수학한 게리 훔(Gary Hume)의 개인전. 알루미늄 패널에 유광 페인트로 그린 매끄러운 표면과 화려한 색감으로 알려진 작가는 어머니, 아이, 꽃, 새, 눈사람 등 익숙한 대상을 분석·관찰한 뒤 형태를 지르거나 확대해 완전히 새로운 조형으로 재구성한다. 추상, 구상, 입체, 평면 같은 고정 언어에 도전하는 그의 작품은 진정성 있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기간 8월 4일까지 문의의 barakatcontempora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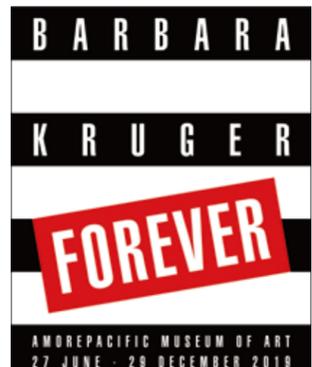
뮤트뮤즈 <The Art of Yellow>
콜라주 작업을 통해 예술의 경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아티스트 B.D 그라프트(B.D Graft)가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라이프 패션 브랜드 뮤트뮤즈와 컬래버레이션 전시를 연다. '내가 노란색을 더하면 내 작품이 되는가?'라는 슬로건으로 오래된 책이나 사진에 노란 조끼를 덧붙인 'Add Yellow' 프로젝트의 대표적 수심 점을 서울 성수동의 감각적인 팝업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31일까지 문의의 mule-muse.com



알부스 갤러리 <미피와 친구할래요?>
국내 최초의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갤러리인 알부스 갤러리는 개관 2주년을 맞아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미피(Miffy)의 일러스트레이션 전시를 진행한다. 미피를 창조한 디 브루너가 만든 미피 그림책 원화와 드로잉 60여 점, 세계 각국의 언어로 출간된 그림책, 포스터, 책 표지, 실크스크린 35점을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 예술가로서 그의 다양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기간 8월 31일까지 문의의 albusgallery.com



갤러리바론 <시그너스 루프>
평면 회화를 매개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활약하는 젊은 작가 5인의 대표작을 전시한다. 배운 환, 알렉스 차베스, 유이치 히라코, 미사키 가와이, 리누스 반 데 벨테가 참여했다. 독창적 작품 세계를 통해 다층적으로 분화하는 동시대 화가의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31일까지 문의의 gallerybaron.com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바라바 크루거: FOREVER>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미국 개념주의 예술가 바라바 크루거(Barbara Kruger)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을 연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병치한 광고 형식의 작업으로 알려진 작가는 간결한 동시에 강렬한 메시지 자체를 통해 대중매체 속 욕망, 소비주의, 전제, 계급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42점의 작품은 대형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작업 유형을 포함하며, 작가의 첫 번째 한글 신작을 최초로 공개한다.
전시 기간 12월 29일까지 문의의 apma.amorepacific.com



송은아트스페이스 <Summer Love: 송은 아트큐브 그룹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치른 작가 16인의 단체전으로, 공간 유연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송은문화재단의 결실을 되돌아보는 자리. 전시 제목 'Summer Love'는 열정적이면서 아련한 젊은 시절의 사랑을 의미하며, 이는 전시와 관계된 작가들의 모습과도 닮았다. 다양한 주제 의식과 매체를 다루는 참여 작가의 작업을 통해 동시대 젊은 작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기간 9월 28일까지 문의의 songeunartspace.org



국립현대미술관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박서보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시기(원형질, 유전질, 초기 모법, 중기 모법, 후기 모법)로 나눠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 1950년대 초기 작품부터 2019년 신작까지 70여 년의 화업을 밀려낸 1백29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관객이 참여하는 작가와의 대화, 큐레이터 토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박서보의 작품 세계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기간 9월 1일까지 문의의 mmca.go.kr

아니미타스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332-2700



KEIRA KNIGHTLEY

CHANEL

THE NEW J12
IT'S ALL ABOUT SECONDS

NEW SELF-WINDING MANUFACTURE MOVEMENT
HIGHLY RESISTANT CERAMIC WATCH. SWISS MADE. 5-YEAR WARRANTY.